

## 한교총, 차별금지법·정교유착 방지법안 재고 촉구

“정통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 제정 시도를 재고하라”



사단법인 한국교회 종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사진], 이하 한교총)은 2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 방지 관련 법안이 자칫 정통교회의 신앙 활동과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한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교총은 반드시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 방지법안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입법 시도가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정통교회까지 포함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며 사회 윤리를 훼

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 제재는 법치 국가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이 차별금지법이나 정교유착 방지법안과 결합될 경우, 사이바이단 종교를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정통교회의 정당한 신앙 표현과 교리적 비판마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별금지법안 논란… “사이비·이단 비판마저 봉쇄할 우려”

한교총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이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통교회가 사이바이단 종교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적 행태를 지적하고 경계하는 행위조차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으로 규정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교유착 방지 법안 개정안… “과잉입법으로 한법 가치 침해 우려”

한교총은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종교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강

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 온 헌법화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설립 허가 취소나 범인 해산 사유로 포함하는 한편, 재산 조사와 해산 시 국고 귀속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민법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사법 체계의 기본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종교법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민법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는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러한 입법을 “과잉입법”으로 규정하고,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학제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반 사회적 종교 단체의 불법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수단으로 민법 개정보다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성명서에서는 가정 ‘반사회적 종교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불법적 현금 갈취나 인권 유린 등을 구체적인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해산 여부 역시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 “상호 간섭 배제와 독립 보장”

한교총은 정교분리 원칙의 본질에 대해서도 입장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과 주요 교단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불법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한교총은 종교인 역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교분리가 정치의 종교 간섭이나 종교 전반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정치는 종교의 선한 영향력을 인정해야 하고, 종교는 국민이 선택한 정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와 종교는 상호 비판적 긴장 관계 속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1천만 성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솔선수범하며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국 기자

##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 어린이 사역에 다시 부흥을”

박연훈 목사, 한국어린이부흥사협회 16대 대표회장 취임

한국어린이부흥사협회(이하 한어협)가 2월 인천광역시 송도주예수교회(담임 신바울 목사)에서 ‘제16대 대표회장 아취임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임시총회, 제2부 대표회장 아취임 감사예배, 제3부 아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임시총회는 박연훈 목사(16대 대표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회칙 수정과 수석부회장 선출, 다음세대 사역 관련 약관 등이 논의됐다.

이어 대표회장 아취임 감사예배는 김태성 목사(13대 대표회장)가 인도했으며, 경배와 찬송 후 최현민 목사(12대 대표회장사랑의빛교회 담임)가 기도를 맡았다.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북한의 박해 현주소(2) 》 7면

‘걸어서 이스라엘’, 시즌 2로 돌아오다 》 23면

이어 정태성 목사(사무총장)가 여호수아 18장 3-6절을 봉독했다.

SB龙门찬양단의 특별찬양 후 말씀을 전한 신상번 목사는 “오늘날 다음세대를 ‘다른 세대’라 부를 만큼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다음세대가 쇠퇴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런 비상시기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어협 임원들과 회원들을 어린이 사역을 위해 보내셨다.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그림을 그려 오라고 하신다”며 “어떻게 사역하고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오늘 취임하시는 대표회장님께서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신 목사는 “여러분에게 어린이 사역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며 “어린이들과 한국교회의 부흥이 다시 한 번 이 땅에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신임 대표회장 박연훈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다. 박 신임 대표회장은 “앞으로 다음세대 사역자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 어린아 청소년 사역자들을 길러내



한국어린이부흥사협회 제16대 신임 대표회장인 박연훈 목사가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우선 직전 대표회장 흥순길 목사( 좋은교회 담임)가 이임사를 전했다. 흥 목사는 “이 시대,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다”며 “박연훈 신임 대표회장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무너진 이 시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줄 믿는다”고 전했다.

이후 권면한 신바울 목사(송도주예수교회 담임)는 “한어협이 다니엘과 같은 다음세대들을 일어나게 할 것이라 믿는다. 개혁과 변화를 통해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기대한다”며 “이 일에 박연훈 신임 대표회장님을 귀하



한국어린이부흥사협회 제16대 대표회장 이·취임감사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게 사용하실 줄 믿는다”고 했다.

김석년 목사(한섬공동체)는 비상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위기의 시대에 길

을 여는 것은 항상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이라며 “오직 복음과 성령으로 사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는 최병현 목사(감리교전국부흥단 37대 대표단장 역임)와 김덕신 목사(에스라선교연구원 원장)가 맡았다. 이후 광고

와 내외빈 소개, 참석자들이 찬송에 이어 조종제 목사(5대 대표회장)의 축도로 행사 마쳤다.

한편, 한어협은 어린이 복음화와 다음 세대 부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전국 교회와 협력해 어린이 집회와 사역자 훈련, 말씀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대표회장 취임을 계기로 어린이 부흥 사역의 네트워크 강화와 현장 중심 사역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협회 측은 전했다.

김진영 기자

##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예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 원코리아범국민연대 출범… 범시민사회 연대로 통일 한반도 비전 제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미래, 하나의 대한민국’ 가치로 분단 극복 나서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원코리아범국 민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출범식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나의 미래, 하나의 대한민국’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 분단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머무르지 않고, 통일을 향한 사회적 책임과 공동의 실천을 시민의 영역에서 확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연대 측은 통일을 선택하거나 정책 옵션의 하나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연대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코리아범국민연대는 ‘하나의 민족, 하

이번 연대의 공동 상임대표에는 (사)일 천만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 한 국NGO연합 이하범 상임대표, 북한민주 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 뉴코리아파운 데이션인터내셔널 케네스 배 대표, 통일 을실천하는 사람들 서인택 공동상임의장,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가 참여했다. 시민사회, 인권, 통일운동, 북한 인권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폭넓은 사회적 기반과 상징성을 갖춘 연대체로 출범하게 됐다.

출범식에는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를 비롯해 뉴코리아파운데이션인터내셔 널, 한국NGO연합 등 시민사회인권청년 탈북민·통일운동 분야에서 활동해온 46 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와 함께 서경석 목사(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와 김가영 탈북 청년 유튜버 등도 자리 함께 연대 출범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장만순 상임공동대표는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두 국가론’에 대해 분단을 제도화할 위험이 있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이 선택의 문제 아니라 헌법과 역사 앞에서 한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공동의 책임라고 강조 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은 헌법 이전의 역

사적 책임이며, 분단 속에서 고통받아온 북한 동포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점을 창설 취지로 밝혔다. 한편 원코리아범국민연대 출범을 계기로 시민이 주도하는 대북방송 ‘코리아링크’의 창립 캠페인도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캠페인은 통일방송을 위한 글로벌 모금 캠페인과 연계해 전개될 계획이다. 연대 측은 이를 통해 국내외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일 한반도를 향한 공론 형성과 실질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승연 기자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방한… 정부·시민사회 면담 및 기자회견 예정

북한 인권 실태 점검 위한 공식 방한, 2~6일 일정으로 서울서 주요 일정 소화

외교부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부터 6일까지 단 새간 공식 방한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속적인 관심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살몬 특별보고관은 외교부를 비롯해 통일부, 법무부 등 관

계 부처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정부 부처와의 만남에서는 북한 인권 현안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 한국 정부의 관련 정책과 입장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서는 김진아 제2차관이 2일 살몬 특별보고관을 접견해 북한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의 방한 일정에는 시 민사회와의 교류도 포함됐다. 그는 국내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을 잇따라 만나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평가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면 담을 통해 국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인식과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서울글로벌 센터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이다. 살 몬 특별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진행한 면담과 논의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유엔 차원의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제사회와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자리로 마련됐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해당 직책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 가

운데 하나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다.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네 번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지난 2022년 8월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방한은 임무 개시 이후 세 번째 공식 방한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이번 방문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논의를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용국 기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노형구 기자

B E Y O N D  
ENTERTAINMEN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위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위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단,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  
즐겨 보세요.

KakaoTalk 퍼스널 친구

카카오톡 퍼스널 친구 WALKERHILL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 박영선 목사 “손가락질 아닌 끌어안는 신앙으로”

마지막 설교 전해



남포교회 원로인 박 영선 목사(사진)가 주 일예배 강단에서 사실상 마지막 설교를 전하며, 신앙의 성숙과 용서, 그리고 십자가 신앙

의 본질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1일 주일 예배에서 육기 42장을 중심으로 설교하며,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겪는 상처에 대한 신경도 함께 밝혔다.

설교에 앞서 박 목사는 예배에 모인 성도들에게 당부를 전했다. 그는 “교회 안팎에서 제 이름을 둘러싼 공격이 어이하고 있는데,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오히려 오해를 키우는 상황이 되면서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들로 예배의 자리가 무기워지고, 교회를 떠나려는 이들까지 생기는 현실을 보며 더 이상 짐을 나누어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공동체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교에서 박 목사는 육기의 결론부를 짚으며,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다음 단계’를 언급했다.

이어 “이런 일들로 예배의 자리가 무기

급했다. 그는 “육이 고백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더 많이 알게 됐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귀로 듣던 신앙을 넘어, 한순간에 전체를 직면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육은 당대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던져졌다”며 “그를 위로하려 온 친구들은 공감보다 판단을 앞세웠고, 육은 그 시선 앞에서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꾸짖으신 대상은 육이 아니라, 육을 재단하던 친구들이었다”고 했다.

특히 “하나님은 육을 놀라버리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부르셨다”며 “그를 심문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내가 말할 테니 너는 들으라’며 허리띠를 잡아 일으키시는 아버지로 등장하신다”고 풀어냈다.

박 목사는 “인류는 늘 정의를 외치며 부패한 권력을 뒤집어 왔지만, 그 끝은 또 다른 폭력으로 귀결되기 일쑤였다”며 “함으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하나님은 육기를 통해 드러내신다”고 말했다.

육기 42장에 이르러 육이 침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장면에 대해 “육은 담을 염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담을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소원조차 명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르쳐 달라’고 묻는 자리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목사는 “친구들은 규칙과 권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육은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로 질문했다”며 “그래서 하나님은 육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응답은 ‘용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분노를 정리한 뒤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서해라. 용서는 틀린 사람 정죄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틀린 사람 용서하고 학합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사랑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믿으면 보상을 주겠다는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결단을 선포한 문장”이라고 했다.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라며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판단의 자리보다 용서의 자리, 고발의 자리보다 품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안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다. 노형구 기자

## 손현보 목사, 출소 후 첫 주일설교… “잘못된 정치 행태 비판한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초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선고와 함께 출소했다. 손 목사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정승윤 예비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오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초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선고와 함께 출소했다. 손 목사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손 목사가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데 따른 ‘정치적 보복’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일부 미국 및 국제사회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안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박해로 바라보는 시각이 제기된 바 있다. 노형구 기자

# “한국교회, 이제는 질적 성장의 리더십 필요하다”

[저자 인터뷰] 『7Q 셀프 리더십의 텁날을 갈아라』 홍영기 목사

한국교회와 사회 전반에 리더십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리더십선교회(GLIM) 대표 홍영기 목사가 『7Q 셀프 리더십의 텁날을 갈아라』를 출간했다.

홍 목사는 30년 넘는 목회와 선교,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번아웃에 시달리는 리더들의 현실을 진단하며 영성부터 체력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셀프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의 질적 성숙은 물론, 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K-리더십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7Q 셀프 리더십의 텁날을 갈아라』를 출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제가 30년 이상 목회와 선교, 그리고 교수와 연구소 소장으로서의 사역을 해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것이 있다. 바로 리더십의 중요성이다. 미국에서 약 10년간 목회했고, 귀국 후에는 개척 목회도 3년 가까이 했다. 한국교회는 이제 양적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질적 성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결국 교회의 미래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저는 육스포드

－이 책은 번아웃을 겪는 리더들을 위한 치침서라고 소개하셨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가?

“사역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다. 번아웃은 열정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열정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온다. 문제는 방향과 자기관리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다. 빌리 그雷합 목사도 말년에 짧은 사절로 돌아간다면 설교와 사역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 계발에 더 시간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대한 사역자들도 번아웃을 경험하며 재점검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 존재일 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자기 점검과 방향 설정, 이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이다.”

－이 책이 모델로 삼고 있는 대표적 리더는 누구인가?

“대표적인 모델은 조용기 목사님이다.



홍영기 목사. ©노형구 기자

크리스천 리더십의 근원은 영성이다.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천 리더십은 영성을 갖춘 리더십이다. 그런 점에서 조 목사님은 영성이 탁월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 없이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또한 긍정성의 모델이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절대 긍정의 신앙이다.

지성적인 면에서도 학벌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독서하고, 영어를 공부하며 자기 계발을 하셨다. 그가 세계적인 설교가가 된 것이 바로 탁월한 영어 실력 때문이다. 인성 면에서도 매우 겸손하셨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교만과 싸우셨던 분이다. 대인관계, 전문성 그리고 체력 관리까지 철저하셨다. 이런 점에서 조용기 목사님은 전인적 리더십의 대표적 모델이다. 성경에서도 살펴 보면 요셉이 좋은 모델이다. 그는 꿈과 비전, 긍정성, 자기계발, 사람을 돌보는 마음, 전문성과 균형 있는 삶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

－책에서 말하는 ‘7Q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첫째는 영성(SQ)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 곧 하나님의 생각, 믿음, 꿈,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함양되는 것들이다. 둘째는 긍정(PQ)이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일에 대한 긍정, 환경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긍정 등 긍정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감사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는 지성(Q)이다. 하나님은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지받은 존재로 지성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평생 독서를 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목사로

서 신학뿐 아니라 사회학, 철학, 역사, 정치학, 통계, 불魯체인까지 공부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는 지금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크리스천 정치인이 필요하다.

온혜를 받았다고 모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로서, 기업인으로서, 교사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실력 있고 영성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태도도 지성을 기르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다.”

넷째는 인성(CQ)이다. 설교나 은사가 탁월해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 성품에 실망해 사람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인격 계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함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13가지 덕목을 정해 늘 자신을 점검하며 실천했다. 크리스천들도 사랑, 희락, 화평, 은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겸손 등 성령의 아홉 가지 덕목을 늘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인성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사람이 넘어져 봐야 아는 것이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다윗과 모세,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바울의 공통점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과 바울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다. 이는 인간의 하물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바울이 거짓말을 성경에 썼겠는가. 그는 사도 중에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간다.”

다섯째는 사회성(NQ)이다. 대인관계는

훈련이다. 말하는 법, 듣는 법, 존중과 공

감은 배워야 한다. 목회자들도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필요를 모르고, 친절과 존중을 실천하지 못하면 목회자도 교만해지기 쉽다. 그 결과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말하는 법, 듣는 법, 사람을 향한 관심과 존중을 계속 공부해야 한다.”

여섯째는 EQ(전문성 지수)다. 소명과 함께 실력이 있어야 한다. 크리스천은 탁월해야 한다. 탁월함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영호롭게 한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어느 분야에서든 크리스천은 탁월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일곱째는 BQ(체력 지수)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체력 관리는 청지기의 책임이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평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실제 적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셨다.

“이 책은 실천을 위해 부록에 각 영역별 실천 루틴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이미 별도의 훈련 교재 『7Q 셀프리더십 루틴 다이어리』 등도 출간됐다. 일주일 단위로 7Q 영역에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이를 통해 리더십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적용에 큰 도움이 된다. 또 3월부터는 『7Q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책과 아카데미 등 이러한 통합 모델은 교회뿐 아니라 개인, 가정, 기업, 조직, 사회 전체에 적용이 가능한 ‘리더십 플랫폼’이자 인생 운영체계라고 본다.”

－이 책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목회자만 위한 책이 아니다. 교회 평신도 리더, 직장인, 기업인, 사회 각 분야의 크리스천 리더 모두에게 해당된다.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7Q를 중심으로 자기 진단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돋는 기준과 프레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

리라 생각한다.”

－저자는 “리더십은 특별한 순간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루 속에 반복되는 루틴에 서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리더십은 훈련이다. 즉 루틴의 훈련이다. 운동선수들도 재능이 있어도 얼마나 연습하는지는 잘 주목하지 않는다.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김연아도 그렇다. 남들 보다 잘하지만 늘 연습한다. 바둑도 마찬가지다. 신진서나 이세돌 같은 바둑기사들도 매일 바둑을 연구하고 연습한다. 리더십도 동일하다. 7Q를 루틴으로 매일 훈련해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 역시 성공과 실패, 고난을 모두 경험했다. 그래서 리더십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다. 7Q 셀프 리더십은 한국교회를 넘어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K-리더십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목사이자 리더십 전문가로서, 교회와 조직, 사회를 섬기는 플랫폼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 싶다.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결국 자기계발, 셀프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나 역시 성공과 실패, 고난과 경험을 모두 거쳤다. 그래서 리더십의 균형, 벨런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7Q라는 모델을 통해 자기계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7Q가 K-리더십이 되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존 맥스웰은 목사이면서도 리더십 전문가였다.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모델이 됐다. 나 역시 목사이지만, 리더십 코치이자 전문가로서 교회뿐 아니라 회사와 조직,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십 플랫폼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

노형구 기자

## ‘AI 시대, 설교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콘퍼런스 열린다

2월 26일 선한목자교회에서

‘AI 시대, 설교는 어떻게 살아남는가?’라는 주제로 오는 2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선한목자교회(담임 김다위 목사) 6층 글로리홀에서 ‘패스웨이 설교 콘퍼런스’가 열린다.

이 콘퍼런스에선 신성우 교수(아신대 설교학)가 ‘AI, 차별화된 설교의 해결책일까?’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가 ‘AI 시대의 기회와 위협, 성육신

적 설교를 회복하라’,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가 ‘AI가 만들 수 없는 이야기’, 이정규 목사(시광교회)가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설교-기술적 영역의 설교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콘퍼런스는 바이블신드롬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선한목자교회가 주관하며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시광교회, 니르크리스천리더십연구소가 협력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목사, 전도사, 신학

생) 대상으로 열리는 이 콘퍼런스의 등록비는 1만 원이다. 참가자들에겐 점심식사와 핸드북, 설교집을 제공한다.

김진영 기자

#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EWP 한국동서발전 주

# 한국올림픽선교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단 위해 기원 예배



단체사진 촬영이 이뤄지던 모습. ©선교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올림픽선교회가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는 예배를 드렸다.

한국올림픽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선교회)는 최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 촌교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파송 및 필승 기원 감사예배'를 열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이날 예배에는 김택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을 비롯해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쇼트트랙 신동민 선수는 훈련 일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황승택 한국올림픽선교회 사무총장을 통해 "깊은 결실

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전했다. 알파인스키 김소희 선수 역시 네 번째 올림픽 도전을 앞두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설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무국 체육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신상운 목사가 맡아 요한복음 11장 38~44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했다. 신 목사는 "나사로를 끓고 있던 걸터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풀린 것처럼, 선수들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부담도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다"며 "빙상과 설상 위에서 결과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국올림픽선교회는 태릉선수촌 시절부터 현재 진천선수촌에 이르기까지 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교회는 '경기장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선수는 그곳에 파송된 복음의 증인'이라는 의미를 담아 기독 국가대표 선수들을 현지 단기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밝혔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선수들을 대신해 파송패를 전달받은 김택수 선수촌장은 "모든 선수가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경기에 임하고, 믿음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올림픽선교회는 2일 이탈리아로 출국해 밀라노 선수촌 내 종교관에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대회 기간 동안 매일 예배를 인도한다. 아울러 경기장 현장 응원과 선수들을 위한 복음 사역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 기감 감독회, UAE 파병 아크부대 방문해 장병 격려

김정석 감독회장 "국위선양 감사… 감리교회가 늘 함께할 것"

기독교 대한감리회(기감) 김정석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기감 감독회 방문단은 최근 군사훈련 협력단으로 UAE 아부다비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를 찾아 임지경 단장을 비롯한 지휘관 및 장병들과 만나 환담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방문단을 대표해 임 단장에게 부대원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함창 차장(KMCF 회장)은 임 단장을 통해 전

화로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에는 서울연회 김성복 감독, 중부연회 황규진 감독, 동부연회 우광성 감독, 남부연회 이웅천 감독, 충청연회 박인호 감독이 동행했다. 감리회본부에서는 황병배 선교국 총무와 황기수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이 함께했으며, 감리회 직전군목단장 정비호 대령(육군 지상작

전사령부)이 이솔을 맡았다. 이와 함께 해군작전사령관과 제27대 병무청장을 역임한 이기식 장로(광림교회)도 방문단에 포함됐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열린 감독회 의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이 제안한 군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감독회는 레바논과 남수단 평화유지군, UAE 군사훈련 협력단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직접 방문·격려하기로 결정했으며, 논의 끝에 UAE 아크부대를 방문지로 정하고 정비호 군목을 통해 일정을 추진했다.

아크부대는 한국군 역사상 타국에 주둔하기 위해 파병된 최초의 전투부대로, 2011년 UAE 측 요청에 따라 파견됐다. 주요 임무는 UAE 특수부대 교육과 양국 우호 증진, 대한민국 특수전 및 연합작전 능력 배양, 중동 지역 재외국민 보호 등이다. 육군특수전사령부와 해군특수전전단을 중심으로 공군 CCT, 해병대 수색대



UAE 아부다비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한 김정석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감

가 함께 파병되는 등 육·해·공 특수부대가 연합 편성된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에는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성과가 축적되면서 현재는 외교·군사적 가치가 높아 평가되고 있다.

방문단은 두바이를 거쳐 아부다비로 이동한 뒤 아크부대 주둔지에서 임지경 단장과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아 부대 예배실에서 '방문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디모데후서 말

씀을 전하며 "낯선 이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며 국위 선양에 힘쓰는 장병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 분의 혼신은 한국인의 자랑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임지경 단장은 답사를 통해 "먼 곳까지 찾아와 주신 감독회장님과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군사외교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LX하우시스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엣지뷰 :  
논슬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LX Z:IN

## 역곡초대교회 '7시간 돌파기도' 3주년 맞아

팬데믹의 긴 터널이 끝나가던 시기, 경기도 부천 역곡역 앞에 위치한 역곡초대교회에서 시작된 '7시간 돌파기도'가 3주년을 맞이했다. 브라질 선교사 원준상 선교사의 지도 아래 순종으로 시작된 이기도운동은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성령의 바람처럼 확산되며 한국 교회는 물론 해외 선교지와 타 종교계에까지 주목받는 기도운동으로 성장했다.

'7시간 돌파기도'는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 모임이 중단되고, 기도의 불씨마저 꺼져가던 시기 속에서 시작됐다. 교회 공동체의 구심점이 약화되고, 기도가 일상의 중심에서 멀어지던 현실 속에서 역곡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다.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이 도전은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오히려 그 절벽함이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됐다.

원준상 선교사는 당시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남는 것은 시간 아니겠느냐", "직장에서도 하루 8시간을 일하는데, 동일한 언어로 7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리 불가능한 일이겠느냐"는 말로 기도에 대한 도전을 전했다. 이 말은 많은 목회자

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실제로 7시간 돌파기도에 참여하게 만드는 동력이 됐다.

3년이 흐른 지금, 역곡초대교회의 7시간 돌파기도는 한국 교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교회들이 이기도 운동에 주목하며 직접 배우기 위해 현장을 찾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 사역 현장에 적용하며 '진행형'으로 배워가고 있다.

해외에서도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독일, 스페인, 영국 등지의 선교사들이 역곡초대교회를 직접 방문해 기도회 운영과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갔다. 이와 함께 신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신학교 사상 최초로 죠지풀리 성경대학에서 돌파기도 회가 개최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를 가능하게 한 조갑진 원장과 홍성철 학장에 대한 감사의 뜻도 함께 전해졌다.

돌파기도회를 통해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다. 역곡초대교회는 매주 등록 교인이 이어지며, 기도회가 부흥의 지름길이 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고 있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돌파기도회에는 기도에 갑급한 영혼들이 꾸준히 모이며 집회 규



모와 열기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청년층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소망을 잃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으로 고통받던 청년들이 역곡초대교회를 스스로 찾아와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아침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서는 모습은 이 기도 운동의 중요한 열매로 평가된다.

처음 시작할 당시 구독자 한 명으로 출발했던 역곡초대교회 유튜브 채널은 현재 구독자는 5,000명에 육박하며, 전 세계 22개국 이상에서 돌파기도 실황을 시청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정은혜 목사(010-2583-0191), 윤석명 목사(010-2447-0675)를 통해 가능하다.

장지동 기자

## 총신대 해외봉사단, 라오스 봉사 해단식 개최



해단식을 기념하면서. ©총신대

총신대학교(총장 박성규) 지역사회봉사센터는 최근 교내 주기철기념홀에서 HOLDERS 해외봉사단 해단식을 열고 라오스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HOLDERS 해외봉사단은 최근 라오스 비엔티안의 Vientiane Dream School을 중심으로 교육봉사를 진행했으며, 공사립학교 36곳이 참여한 장애학생 교육포

럼을 통해 특수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밖에도 장애 아동 교육 지원, 음악·과학·미술 수업, 환경 정화와 문화교류 활동을 병행했다.

총신대 지역사회봉사센터는 앞으로도 국내외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 인도 기독교 박해, 세계감시목록 순위 하락에도 여전한 위기

## 세계감시목록 12위로 한 단계 내려갔지만, 박해 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 기록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가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한 단계 내려갔지만, 현지 기독교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어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세계감시목록(WWL) 2026'에 따르면, 인도는 전년도 11위에서 12위로 내려갔으나 박해 종합 점수는 84점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는 인도의 순위 변화가 상황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박해 상황이 더욱 악화된 데 따른 상대적 변동이라는 분석이다.

오픈도어는 세계감시목록이 국가 간 상대 비교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순위 하락이 곧바로 박해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도의 박해 강도는 여러 지표에서 오히려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지수 역대 최고차… 기독교인 구금체포 세계 최다 기록

이번 보고서에서 인도의 폭력 점수는 16.7점 만점에 16.1점을 기록하며, 오픈도어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인도는 조사 기간 동안 기독교인 구금과 체포 건수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보고 기간 동안 1,622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거나 재판 없이 구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생활 영역에서의 박해 점수 역시 15.1점을 기록해, 조사 대상 5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법제도와

사회 전반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광범위하게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인도 내 기독교 박해를 감시해 온 현지 단체들도 유사한 평가를 내놓았다. 인도복음주의연맹(EFI) 종교자유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최소 920건의 기독교인 대상 사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단일 연도로는 역대 최다 수치라고 밝혔다.

인도기독교연합포럼(UCF) 역시 2024년에만 834건의 사건을 집계했다. UCF는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비 조사 결과 박해와 폭력이 더욱 조직화되고 위협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혐오 발언의 금증과 함께 기독교인을 겨냥한 집단적 공격

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계감시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괴롭힘 사례는 전년도 대비 69% 증가했다. 이전 조사 기간 13건이었던 관련 사례는 22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은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2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개종법 남용, 박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

기독교 지도자들은 최근 인도 내 박해 양상이 물리적 폭력에서 범적 압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州) 정부 차원에서 제정강화되고 있는 반개종법이 주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 리자스탄주는 반개종법을 제정한 12번째 주가 됐다. 해당 법률들은 개종의 강요나 사기를 금지한다는 명분 아래,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거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독교 선교와 종교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1월에는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기독교인 부부가 반개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최대 종신



보고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인도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위상 강화가 정부로 하여금 소수 종교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사회적 적대감과 혐오 발언의 확산이 박해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접두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되는 혐오 표현이 교회 공격과 예배 방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는 것이다.

◆"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현실"

기독교 인권 활동가들과 지도자들은 세계감시목록 순위만을 근거로 인도의 상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해가 일상화되고 행정사법 절차 속에 내재화될수록 외부에서는 덜 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앙 공동체에는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다.

최승연 기자

## 남수단 난민캠프서 기독교 개종 갈등 확산

### 무슬림 가정 반발 속 난민캠프 교회 지도자 체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남수단 내 수단 난민캠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10대 여성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며, 현지 교회 목회자가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남수단 아종록(Ajoang Thok) 난민캠프에서 활동 중인 글로리 침례교회 소속 조셉 샤위시 목사가 무슬림 가정의 고발로 현지 경찰에 의해 구금됐으며, 현재까지 공식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이하 현지시각)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아모나 이브라힘 카키의 오빠 하산 이브라힘 카키가 난민캠프 경찰서를 찾아 조셉 샤위시 목사를 강제로 데려가 납치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샤위시 목사를 구금 중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기독교로 개종한 18세 여성, 가족에 의해 주방

아모나 카키는 수단 누비산맥 지역 출신 난민으로 남수단 아종록 난민캠프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는 약 2년 전 우연히 발견한 성경을 읽기 시작한 뒤



수단에서 분쟁을 피해 남수단 국경으로 대피한 피난민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있기 때문에 그녀를 돌려보낼 수 없다"며 "아직 매우 어린 나이이고, 생명의 위협이 분명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으로 돌아가면 죽임당할 수 있다"는 당사자 증언

아모나 카키는 가족에게 돌아갈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족 중 어머니가 돌을 들고 쫓아냈으며, 오빠가 '한 집에 함께 살 수 없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오빠가 살아 있는 한 자신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모나는 오빠가 외출한 사이 그의 방에서 성경을 발견했고, 공부를 위해 사용하던 방에서 매일 성경을 몰래 읽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고, 기도가 응답됐다고 느끼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12월 25일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신앙을 공개했다. 이후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무슬림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유엔난민기구(UNHCR)에 개입을 요청하며, 종교적 이유로 위협받는 난민에 대한 보호와 재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동아프리카 지역 교회들은 난민캠프 내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수단의 종교 환경과 국제 지표

수단은 인구의 약 93%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국 순위(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수단은 기독교인이 살기 어려운 국가 50개국 중 4위에 올랐다. 수단은 2021년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종교 박해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 이승찬 선교사, 캄보디아 전국유도선수권 성과 이끌어

캄보디아 2026 전국유도선수권대회가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프놈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캄보디아 국가대표 주축인 왕립군 소속 선수들이 전원 메달을 획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결과 뒤에는 캄보디아 유도연맹 코치로 활동 중인 이승찬 선교사의 지속적인 지도와 훈련이 있었다. 이 선교사는 국가대표와 왕립군, 올림픽 후보 선수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정과 체계적인 훈련을 이어오며 전반적인 경기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왕립군 유도팀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은 세밀한 기술 지도와 엄격한 훈련,



선수들과 함께 ©이승찬 선교사

그리고 선수들을 향한 꾸준한 격려 덕분"

몸으로 전해진다"며 "유도를 통해 선수들과 시간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형구 기자

##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롭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AEKYUNG



# 은혜제일교회, 2026 신년음악회 열려… 전 세대 아우른 ‘희망의 선율’

31일 김정택 단장 초청 2026 1st 북콘서트 및 신년음악회 개최  
영화 ‘신의악단’ 100만 위한 퍼포먼스, 티켓 100장 무료 배포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최원호 담임목사) 본당은 어느 때보다도 흥겹고 신나는 음악 공연과 함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새해를 맞아 개최된 ‘은혜제일교회 2026 1st 북콘서트 & 김정택 SBS 명예예술단장과 함께하는 2026 신년음악회’는 클래식, CCM, 팝페라, 가요, 민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세련되고 힘찬 무대로 세대와 신앙을 넘어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 전율을 선사했다.

특별히 김정택 단장은 이날 입안 염증이 심해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종이에 글을 써서 관객들과 소통했다. 그러면서도 터고난 흥과 재능, 예전한 연주 실력을 뽐내며 음악만으로도 특별한 감동을 전했다. 김 단장은 은혜제일교회 북콘서트에서 2023년 7월 간증과 공연을 하고, 그해 12월 연말 콘서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관객들의 요청에 힘입어 이번에 앙코르 무대로 다시 초대된 것이다.

김 단장은 5년 전 구강암 발병으로 36 차례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완치됐었다. 이날 고난 중에도 열정적인 피아노 연주와 시종 웃음을 잊지 않는 김 단장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자 살아있는 간증이었고, 눈시울을 적시는 성도들도 있었다.

이어 ‘저는 김정택 선생님을 만나기 전



클로징 무대에서 전 출연자가 공연한 후 최원호 목사(무대 가운데)가 축도하기 전 멘트를 전하고 있다.

김정택 단장의 제자 및 후배들이 소프라노 김형애, 여성 4인조 팝페라 그룹 엔젤디바, 경기민요 명창 양은별은 김 단장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각자 분야에서 암도적인 실력과 완벽한 퍼포먼스,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로 감동과 은혜를 전했다.

대한민국 1세대 팝페라 그룹인 인치엘로 (INCIETO)의 리더 태리도 콘서트에 참여해 후반부 공연에 풍성함을 더했다.

김정택 단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연주와 함께 박수와 환호로 시작된 콘서트는 김 단장의 ‘엑소더스(영광의 탈출)’, ‘아드린느를 위한 발리드’, 영화 대부 OST ‘갓파더(Godfather)’ 연주 등으로 이어졌다. 소프라노 김형애는 절제된 감정과 깊은 울림으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야’를 불렀고, 경기민요 명창 양은별은 민요풍의 찬양인 ‘아리랑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앙코르곡으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열창하여 찬사를 받았다.

양은별은 “김정택 선생님이 저를 최초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김 선생님이 지금 말씀이 어려우시지만, 아마 ‘저는 입안이 조금 아파서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고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클로징은 전 출연자가 ‘오 솔레 미오(O Sole Mio)’를 ‘오 은혜제일교회, 너

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선생님께서는 삶으로 크리스천이란 이런 것이라고 저에게 보여주셨다”라며 “오늘같이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연주회가 크건 작건 모든 음악회 구성원이 다 모여 손을 잡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서 참 아름답다’로 시작하며 열창했고, 김정택 단장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음향팀과 기도해 주신 성도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원호 목사의 축도로 공연을 마쳤다.

이후 참석자들에게 최원호 목사의 저서들과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고, 최근 역주행 중인 영화 ‘신의악단’ 100만 돌파를 위해 영화 속에 삽입된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을 부르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의악단’은 2월 2일 누적 관객 수 93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종교 밖 해가 심한 북한에서 돈을 위해 조직된 가짜 찬양단을 통해 진짜 신앙을 갖게 된다는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 목사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포함해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전도 목적으로 100명에게 영화 관람 티켓을 무료로 전



영화 ‘신의악단’ 100만 돌파를 위한 퍼포먼스에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을 부르고 있다. 맨 앞줄 왼쪽이 김정택 단장 ©이지희 기자

달하기로 했다.

최원호 목사는 “이 작품은 우리 현실을 비춰 주고 초대교회의 첫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고백이 노래가 아니라 삶의 간증이 되기를 바며 나누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설교보다 더 따뜻한 전도이고, 교회보다 먼저 다가가는 복음의 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영화 한 편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전도가 되는 자리, 그 나눔의 핵심은 바로 ‘초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혜제일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 북콘서트(매.마.토.2)에 문화, 예술, 신앙 분야의 유명 인사를 초청해 특강, 간증, 공연 등을 펼쳐 삶과 신앙의 지혜, 회복과 희망을 전해왔다. 오는 3월 28일 오후 2시에는 2026 2nd

북콘서트로 색소포니스트 심상종 교수, 트롬본 연주자 이한진 교수를 초대해 두 관악기가 어우러지는 ‘황금빛 봄의 선율, 어메이징 그레이스’ 콘서트를 진행한다. 사순절을 맞아 기도의 본질과 의미를 묵상하는 영성 에세이를 읽은 최원호 목사의 신간 ‘기도의 자리’ 출간 기념 북콘서트도 함께 진행되며, 참석자들에게 신간을 증정한다.

오는 6월 27일에는 ‘은혜’, ‘감사’, ‘소풍’, ‘염려하지 말라’ 등을 부른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월드비전 교회협력 흥보대사)가 초청돼 간증과 찬양을 나눌 예정이다. 최원호 목사는 “앞으로도 은혜제일교회 북콘서트는 신앙과 삶, 예술과 말씀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 많은 분께 삶의 위로와 방향을 드리길 원한다”고 전했다(문의 02-433-0697) 이지희 기자

##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북한의 박해 현주소(2)

박해와 선교 현장(2) 북한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과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기독교가 융성했던 평양은 현재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곳 중 하나이다. 특히 성분 제도를 통해 기독교인을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여 감시하며, 발각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노동 수용소에 감금하거나 처형하는 등 가혹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극한의 감시 속에서도 약 40만 명의 신자가 지하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북한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글이다.

Q. 북한 주민들은 왜 탈북을 결심하나? 지도자에 대한 환멸 때문인가? 아니면 단지 배고파서인가?

북한 사람들이 나리를 떠나는 가장



북한의 성도들에게 성경을 건네는 모습(연출 사진) ©한국오픈도어

Q. 북한 주민들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주민들의 인식은 체제 선전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크게 따라 달라진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매체를 통해 기독교는 외세의 종교, 위험하고 악한 것, 북한을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예를 들어,

선교사가 아이들을 독살한다, 장기를 빼앗는다와 같은 허구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주입된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은 기독교인을 국가의 적으로 본다. 믿지 않더라도, 생존을 위해 의심하거나 무관심한 척한다. 기독교인을 신고하면 식량이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배신이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선전을 믿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외부 미디어 유입으로 선전에 회의를 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부는 꿈, 개인적 체험, 설명 할 수 없는 계기로 복음을 접하고 믿음에 들어오기도 한다. 이들의 간증은 복음이 아무리 억압적인 환경에서도 완전히 막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Q.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으면 어떤 위험을 겪나?

오늘날 탈북은 극도로 위험하다. 이웃 국가들은 대부분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체포 위험, 강제 송환 위험, 좌취와 인신매매, 주거생계 불안이 뒤따른다. 특히 여성과 아동은 더욱 취약하다.

Q. 강제 송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북한으로 돌아가면 극심한 처벌을 받는다. 탈북은 중대한 범죄로 여겨진다. 일 반적으로 가혹한 조사, 고문, 교화소·노동 교화소 수감, 강제 노동, 경우에 따라 공개 처형된다. 여성의 경우, 특히 외국인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강제 낙태가 시행되기도 한다. 기독교인으로 의심되거나, 외부에서 교회 혹은 믿는 사람과 접촉한 것이 드러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Q. 북한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영작·육적 강인함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용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평안 △복음을 안전하게 전할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적으로 북한 전역에 퍼지도록 기도해 달라. 또한 국경 너머에서 이들을 돋는 사역자들을 위해 스지혜와 분별력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 △사역을 지속할 힘을 위해 기도해 달라. 북한 성도들이 잊히지 않았으며,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깊이 느끼도록 기도해 달라. (끝) 한국오픈도어

북한 사람들은 왜 탈북을 결심하나? 지도자에 대한 환멸 때문인가? 아니면 단지 배고파서인가?

북한 사람들이 나리를 떠나는 가장



월드비전은 모든 어린이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입니다.

월드비전 후원 문의  
02-2078-7000 www.worldvision.or.kr



# 英 젊은층 기독교 부흥론 과장 논란… 퓨리서치 “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

영국 젊은 층 사이에서 기독교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는 실제 상황을 과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새로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조사 방식에 크게 좌우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퓨리서치는 최근 영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종교적 신앙과 실천 수준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여러 설문조사를 검토했다. 이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십 년간 이어진 소회 이후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퓨리서치는 이러한 결과의 상당수가 옵트인(opt-in) 방식의 설문조사에서 도출됐다고 밝혔다. 옵트인 조사는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는 대신, 광고나 메일링 리스트, 온라인 패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퓨리서치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평가받는 무작위 표본(random sampling) 기반의 대규모 조사에서는, 젊은 성인층에서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논쟁은 2025년 4월, 성서공회(Bible Society)가 의뢰해 발표한 보고서 '조용한 부흥'(The Quiet Revival) 이후 본격화됐다. 이 보고서는 옵트인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18-34세 중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결과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으며,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십 년간 이어진 소회 이후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퓨리서치는 이와 유사한 결론이 티어펀드(Tearfund), 임팩트 오브 페이스 인 라이프(Impact of Faith in Life), '응답된 기도의 영원한 벽'(Eternal Wall of Answered Prayer) 프로젝트 등 기독교 자선단체나 신앙 기반 기관이 의뢰한 다른 옵트인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조사에서는 젊은 성인들이 기도, 온라인 예배 참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향후 교회 출석 계획 등에서 노년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무신론자로 정체화

할 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퓨리서치는 무작위 표본 조사를 살펴볼 경우,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매년 2만 가구,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영국 노동력 조사(UK Labour Force Survey)에 따르면,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자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5년 여름 기준 영국 성인 중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규정한 비율은 44%로, 2018년의 54%에서 크게 하락했다.

18-34세 연령층에서는 기독교인 비율이 28%에 불과했으며, 이는 2018년의 37%에서 감소한 수치다.

또 다른 무작위 표본 조사인 영국 사회태도 조사(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 역시, 기독교인으로 정체화하면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젊은 성인 중 월 1회 이상 교회에 출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로, 팬데믹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런던대(UCL)의 사회과학자 데이비드

보아스(David Voas) 등 연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감소 이후 교회 출석이 다소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않았다고 평가한다.

옵트인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적 보정을 거치더라도 표본 편향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응답자의 부정확한 응답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 응답이 탐지 시스템을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인문주의 단체 휴먼나이스트 UK(Humanists UK)는 '조용한 부흥' 보고서의 결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서공회는 해당 연구의 타당성을 반복적으로 옹호해왔다.

퓨리서치는 미국에서도 옵트인 설문조사를 근거로 젊은 세대의 기독교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퓨리서치 자체 조사와 일반사회조사(GSS), 미국 시간 사용 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등 인구 기반 연구들은 젊은 층에서 종교적 부흥이 나타났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서공회의 '조용한 부흥' 보고서는 오랜 기간 검증된 방법론을 사용하는 고품질 유고브(YouGov)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고브는 응답 편향을 통제하는 데 매우 엄격하다. 완벽한 설문조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옵트인 조사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고브의 결과를 지지하는 다른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며, 전 세계 영성을 다른 최근 퓨리서치의 자체 조사 역시 종교성이 유고브 조사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조사들 간의 일치도가 높아 유고브 결과를 예의적인 사례로 치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과 웨일스의 영적 환경 변화의 또 다른 지표로는 성경 판매 증가, 성인 가톨릭 개종자의 눈에 띠는 증가, 젊은 층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게 늘었다는 유고브 조사 결과,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에서의 세례 및 교회 출석 급증 등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 영화 제작사 '비라이트 프로덕션' 출범

### 라틴계 목회자 최초 사례

사무엘 로드리게스(Samuel Rodriguez) 목사가 영화 제작사 비라이트 프로덕션(BeLight Productions)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며, 이 규모의 영화 제작사를 이끄는 최초의 라틴계 목회자가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엘 멘사해 커뮤니케이션(El Mensaje Comunicaciones)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가 로드리게스 목사의 사역 연장선에서 출발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가치를 반영하는 서사를 통해 현대 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라이트 프로덕션은 이미 여러 주목 할 만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그중에는 인기 드라마 시리즈 '오자크(Ozark)'의 제작자인 마크 윌리엄스(Mark Williams)와의 협업도 포함돼 있다. 해당 영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 중 하나님을 설립한 할 도널드슨(Hal Donaldson)의 삶을 조명할 예정이다.

영화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플레이밍 핫(Flamin' Hot)' 등의 흥행작에 됐다"고 평가했다.

참여한 바 있는 로드리게스 목사는 이번 행보가 신앙 공동체에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영화는 영향력과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제작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가운데 이루고 계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날 세상은 복음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다시 기억하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 가도록 영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라이트 프로덕션 팀에는 영화감독 파비올라 로메로(Fabiola Romero)와 홍보 전문가 파이라 카스트로(Fayra Castro)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해, 히스파니 시장을 겨냥한 탄탄한 제작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계 인사들 역시 이번 출범을 환영하고 있다. 영화 '플레이밍 핫'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 리처드 몬타네즈(Richard Montanez)는 "그가 전 세계에 전해온 그 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의 메시지가, 그가 충분히 준비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향후 '더 드림 킹(The Dream King)', '리빙 멤피스(Leaving Memphis)' 등의 작품에 선보일 예정인 비라이트 프로덕션은,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에서 가치 중심의 영화 제작을 이끄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미디어 영역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로드리게스 목사는 미국 내 영향력 있는 메가처치 가운데 하나인 뉴 시즌 교회(New Season)의 담임목사이며,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수백만 히스파니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전국 히스파니 기독교 지역자총회(NHCLC)의 회장을 맡고 있다.

이미경 기자

## 이란 출신 기독교인 자매 2명, 불법 입국 혐의 재판 중 보석 석방

최근 불법 입국 혐의로 미 연방 당국에 구금됐던 이란 출신 기독교인 자매 2명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석방됐다.

성공회 뉴스 서비스(Episcopal News Service, ENS)에 따르면, 연방 판사는 지난 1월 16일(이하 현지시간) 마한 모타하리(Mahan Motahari:38)와 모잔 모타하리(Mozhan Motahari:31)에 대해 변호인 측이 석방 청원을 제출한 뒤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모잔 모타하리는 다음 날 석방됐으며, 마한 모타하리는 그로부터 며칠 뒤 풀려났다.

그는 "판사도 법정에 모인 많은 지지자들을 언급했다"며 "변호사 사무실에는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공간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모타하리 자매는 이란에 있을 때 이미 기독교 신앙을 접했으며, 미국에 도착한 직후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미경 기자

# 힘센 충남!

## 대한민국을 부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를 이제, 힘센 충남이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청남도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nergy...energy...energy  
extenx...extenx...extenx  
of SK Innovation

[ 에너지의 무한공식 ]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이노베이션

# 김민석 국무총리 “J.D. 밴스 미 부통령과 핫라인 가동”… 관세 재협상 국면 소통 강조

방미 직후 연락처 교환 후 수차례 교신…  
트럼프 관세 발언 진의 파악에 활용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2일 방미 직후 구축했다고 밝힌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핫라인’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 재협상 압박 국면에서 핫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장에서 직접 전화번호를 교환

한 이후 여러 차례 소통을 주고받고 있다 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방미 당시 밴스 부통령의 연락처와 함께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억류 사태 해결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앤드류 베이커 안보보좌관의 전화번호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관세 인상 가능성에 언급한 직후,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접촉 창구를 가능해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핫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의 취지는 이미 논의돼 온 관세 합의를 보다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는 요청 차원으로 이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사안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기

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차분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쿠팡 배후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일부 국내외 언론에서 밴스 부통령이 쿠팡을 상대로 주된 압박을 했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메시지의 주요 배경이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은 실제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쿠팡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해당 사안이 불필요하게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를 낳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은 밝혔다. 박용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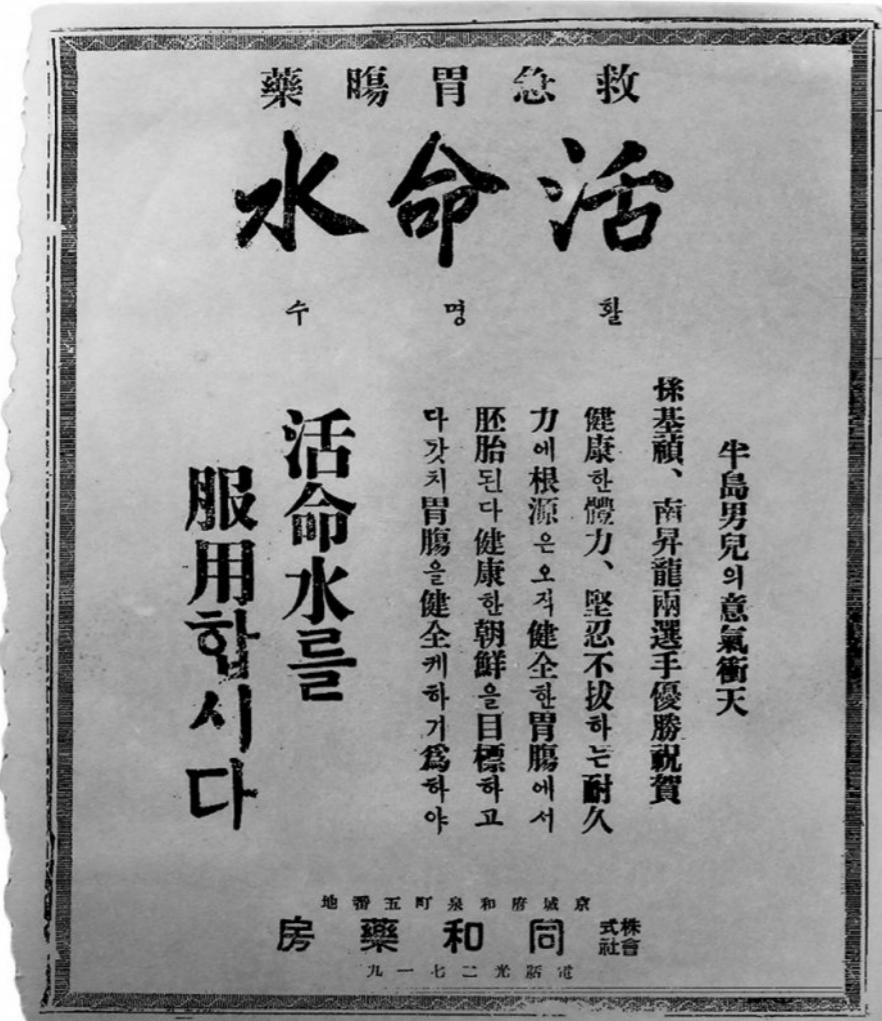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더 쉽다”… 편셋 규제·머니 무브로 시장 안정 자신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엑스 위터)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

토 언급 이후 거래가 줄고 일부 매도량이 나오며 가격 하락이 주춤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

구미아장약 헬프수  
반도미아의 이기 죽었을  
건강한 체력. 전기  
활약수를 보여주시다  
건강한 조선에 목표를  
하고 다같이 위장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배태된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동화약품

## 국민의힘·서울시, 한강벨트 포함 서울 도심 31만호 공급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병행… 여·야·정·서 4자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압법 보완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최소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주비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고, 해법으로 공급 확대와 민간 사업성 회복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주도 공급 방식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민간 중심 공급과 조기 착공을 통한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국 기자

## 일론 머스크 제국 확장… 잭 웰치 시대 GE 닮은 ‘초대형 복합기업’ 부상

테슬라-스페이스X-xAI  
통합 구상 관측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사업 영역을 전방 위로 확장하면서 과거 잭 웰치가 이끌던 제너럴 일렉트릭(GE)의 거대 복합기업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차와 우주, 인공지능 등 서로 다른 산업에서 운영돼 온 기업들이 하나의 전략적 틀로 묶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초대형 복합기업이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머스크 CEO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을 복합기업 구조로 통합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는 각 사가 분리돼 있으나, 자본 운용과 기술 협력, 장기 전략 측면에서는 결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약 8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S&P 500 기업 대부분의 시가총액을 웃도는 수준으로, 인플레 이션을 반영한 GE의 역사적 최고 가치와 맞먹는 규모로 평가됐다.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짧은 기간에 구축한 기업 제국의 외형이 과거 GE가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며 영향력을 확대하던 시기와 유사하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가 서로 다른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머스크 개인의 의사결정과 비전을 중심으로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비교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머스크의 ‘하드코어’ 경영 방식은 1980년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뉴트론 잭’이라 불렸던 잭 웰치 전 GE 회장의 성과 중심 경영과 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도 높은 성과 압박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혁신과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조직 안정성과 장기 관리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행보가 창업자 개인의 영향력이 기업 전반을 관통하는 ‘개인 중심 복합기업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과거 GE가 조직 비대화 끝에 2024년 분할된 사례처럼, 복합기업 특유의 가치 저평가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규제 강화가 머스크 제국의 지속 가능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흥은혜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그래미 수상… K-팝 작곡가·프로듀서 첫 영예

가상 걸그룹 헌터릭스 곡 ‘골든’,  
그래미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 수상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네티플릭스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작품 속 가상 걸그룹 ‘헌터릭스’가 부른 주제가 ‘골든’은 2일 한국시간으로 사전 발표된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수상자 명단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을 차지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이후 K-팝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독창적인 설정과 서사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작품 전반을 이끄는 음악은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돼 왔으며, 이번 그래미 수상은 영화 음악으로서의 완성도와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수상곡 ‘골든’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통산 8주 동안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을 입증했다. K-팝을 기반으로 한 가상 그룹의 노래가 장기간 차트 정상에 오른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 곡은 앞서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에서도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주요 국제 시상식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뒀다. ‘골든’을 작사·작곡한 한국계 미국 작곡가 겸 가수 이재(EJAE)를 비롯해 작곡에 참여한 테디(박홍준)와 24(서정훈), 프로듀싱팀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하동) 등 더블레이블 소속 프로듀서들도 이번 그래미 어워즈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은 K-팝이 무대 공연과 음반 시장을 넘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비주얼 미디어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흥은혜 기자



SINCE 1897

#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다… 2026 달拉斯 위브릿지 컨퍼런스

## 건강한 교회와 목회의 회복을 향한 복음주의적 성찰의 장

미국 텍사스 주 지역으로 확장된 '달라스 2026 위 브릿지 컨퍼런스(We Bridge Conference)'가 미주 기독일보 주최로 현지 시간 26일(월)부터 27일(화) 양일간 플라워마운드교회(최승민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건강한 교회 세우기(연합, 섬김, 위로)"를 주제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연결하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LA를 비롯해 휴스턴, 샌안토니오, 오스틴 등 각지에서 자리에 참여했다.

첫날 이성일 목사(온타리오 연합감리교

회)의 사회로 시작해 오후 1시 30분에 목회코칭이란 주제로 김경도 목사(플라워마운드교회 사역목사)는 미주 한인 이민교회 현실 속에서 코칭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현재 사역의 방향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코칭을 통해 목회자의 역량을 키우는 '목회 코칭', 둘째는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을 세우는 '조직 코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히 평신도 코칭을 통해 교회 안에 건강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에 와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는가, 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 성경을 가르치고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깊이 살펴봐야 한다"며 "진정한 양육의 99%는 일대일 코칭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조엘 코미스키의 말을 인용했다.

김 목사는 교회 내 일꾼 부족과 리더십 부재의 문제 역시 일대일 코칭의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일대일 코칭에 집중하고 싶다"며 "참된 양육이 개인을 향한 깊은 코칭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평신도 리더들이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코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변화된 문화 속에서 자시와 명령 중심의 리더십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코칭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과거 산업사회는 상하 조직과 권위적 리더십이 중심이었지만, 오늘날은 수평적 관계와 자발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적 코칭 모델로 모세와 이드로, 배울과 배우나비의 관계를 소개했다. 김 목사는 "코칭은 관계로 시작해 관계로 끝난다"며 "배우나비가 배울을 찾다가 관계를 맺고 사명을 깨닫게 하며 사역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위대한 코칭의 모습이다. 코칭을 통해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다니엘 박 선교사는 '목회자, 남편과 아버지로 다시 서다'를 주제로 한 목사 세미나 강의를 통해 목회자의 정체성 회복과 가정기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사로 훈련받은 다니엘 박 선교사는 1993~1994년 결혼 이후, 더 깊은 사랑과 사명을 향한 도전 속에서 김준근 장로를 만난 계기를 소개했다. 그는 김 장로로부터 "왜 한국인을 미국에 보내셨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질문을 받으며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강의에서는 다음세대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그는 "왜 2세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가, 왜 고등학교 졸업 후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마 기도운동을 통해 전국을 다니며 이 문제를 불러들여 왔다고 전했다.

그는 "2026년을 바라보며 가족과 교회가 무엇이 변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로 기도의 약화를 지적하며, 특히 새벽기도와 철야기도가 크게 줄어들었고, 담임 목회자의 기도 현신이 약해진 것이 핵심 문제라고 분석했다.

다니엘 박 선교사는 회복의 열쇠로 '정체성'과 '이름'을 강조했다. 그는 '3 NAMES'를 언급하며, "너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세 자녀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전했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험을 통해서도,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나를 회복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경험도 나눴다. 신앙이 깊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마지막 병상에서 축복을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축복의 말이 흘러나왔고, 그 순간 하늘의 임재를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후 아버지는 8개월을 더 사시며 매일 축복을 남기고 천국으로 떠나셨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세번째 강의에서 김귀보 목사는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제목 하에 설교의 본질과 목회자의 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강조했다. 그는 설교를 기술이나 전달의 문제가 아닌, 말씀이 성도 안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게 하는 통로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 없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설교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종종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성도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듣고 싶어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목회자들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지루해할 것이라 오히려 하지 만, 성도들은 본래 말씀을 기대하며 교회에 온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성경을 '렌즈'를 통해 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렌즈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 평소 보이지 않던 인간의 반응과 내면이 드러나고, 요셉이나 다윗의 이야기가 곧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와 기도가 무너진 모습, 공허함을 느끼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내러티브 설교"라고 강조했다.

김귀보 목사는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가 역사하게 하는 것"이라며, "말씀이 곧 성도의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돈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이민교회 사역의 현실도 솔직하게 나눴다. 다섯 차례의 교회 이전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불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돈을 계산하기 때문"이라며, 재정 계산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돈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보자"는 원칙을 교회에 심었고, 그 결과 돈이 없는 상황에서 200만 달러 건물을 구입하는 일도 경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성도들 안에 DNA처럼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귀보 목사는 "목회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라며, 목회자가 그렇게 살 때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자연스럽게 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매주 수요일 교회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숲'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 목사(GMC 한미연회)는 첫째 날 저녁 특별집회 메시지를 통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세워가시고 움직이시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며 목회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예루살렘교회가 사도행전 1장 12~14절 말씀처럼 열흘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말씀에서 주의 손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며 "우리의 설교와 사역 위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



다니엘 박 선교사



김귀보 목사



이성철 목사



강태광 목사



플라워마운드교회에서 열린 달拉斯 위브릿지 컨퍼런스에서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는 목회자 소명의 회복에 대해 강의했다. ©미주 기독일보

했다.

그는 "제자훈련을 마쳤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훈련과 삶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진다"는 고백이 성도들 가운데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라고 설명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을 인용하며, 그는 참된 복음의 갑작은 개인의 감정과 생각 안에 머물 수 없고 반드시 흘려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음이 한국과 미국에 전해진 것도 이 흘려넘치는 갑작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디옥교회를 세운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려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천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며 말씀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 김준일 목사(블레싱교회)는 네 번째 강의에서 '뉴 밸런스(New Balance)'를 주제로 개척교회 목회 현장에서 체득한 실제적인 목회 철학과 전략을 나눴다. 그는 개척교회 목회가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가정미디어예배가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개척교회 목회의 현실을 언급하며 "개척교회 목사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행정, 교육, 예배까지 목회자와 사모에게 과도하게 짐중되는 구조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세대 신앙 교육을 교회 부서에만 맡기는 구조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교회 개척 초기 3년 동안 스스로를 '교육부 목사'로 살겠다고 결단했다. 다음세대 신앙 교육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시작돼야 하며, 교회는 이를 돋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는 "교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연령대의 가정은 어느 도시든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블레싱교회는 개척과 동시에 교육부를 구성했다. 김 목사와 사모, 단 두 명으로 시작한 교육부 사역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운영됐다. 예배는 율동 찬양으로 시작됐고, 이후에는 두 사람이 스킷(연극) 형식으로 말씀을 전했다. 매주 본문 말씀을 연극으로 풀어내며, 때로는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균형으로 '미디어 목회'를 제시하며, "앞으로 3년간 미디어 목사로 살겠다"는 또 다른 결단을 나눴다. SNS와 유튜브, 쇼츠 영상이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중요한 통로가 되는 시대 속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교회를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균형은 예배 중심 목회였다. 김 목사는 "앞으로 3년간 예배 담당 목사로 살겠다"고 선언하며, 예배에 대한 분명한 목회 철학을 나눴다. 그는 "웃으면서 시작해 웃으면서 끝나는 예배"를 지향한다고 밝히며, 설교 이후 결단의 시간을 친양으로 충분히 드리는 예배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행복 칼럼'을 쓰게 된 배경을 소개 했다. 그는 "성경은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한다"며 "행복은 신앙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 목회 현장에 만연한 왜곡된 자아관을 지적했다. 강 목사는 "목회자는 교회의 크기나 숫자로 평가받기 위해 부른 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며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는 순간, 목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강 목사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며 '에클레시아'와 '퀴리아코스'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에클레시아'는 시민 공동체의 모임을 의미하며, '퀴리아코스'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를 뜻한다"며 "교회관이 왜곡되면 교회를 숫자와 서열로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명이 모인 교회라도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를 섭기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목사는 건강한 목회를 위한 자기 관리 질문도 제시했다.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정 가능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건설적인 사람인가, 연결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회자는 개인 성장에 몰두해야 하며, 지속성과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쓰기와 독서를 자신의 행복의 원천으로 소개하며 "매일 칼럼 하나를 쓰겠다는 나와의 약속이 나를 성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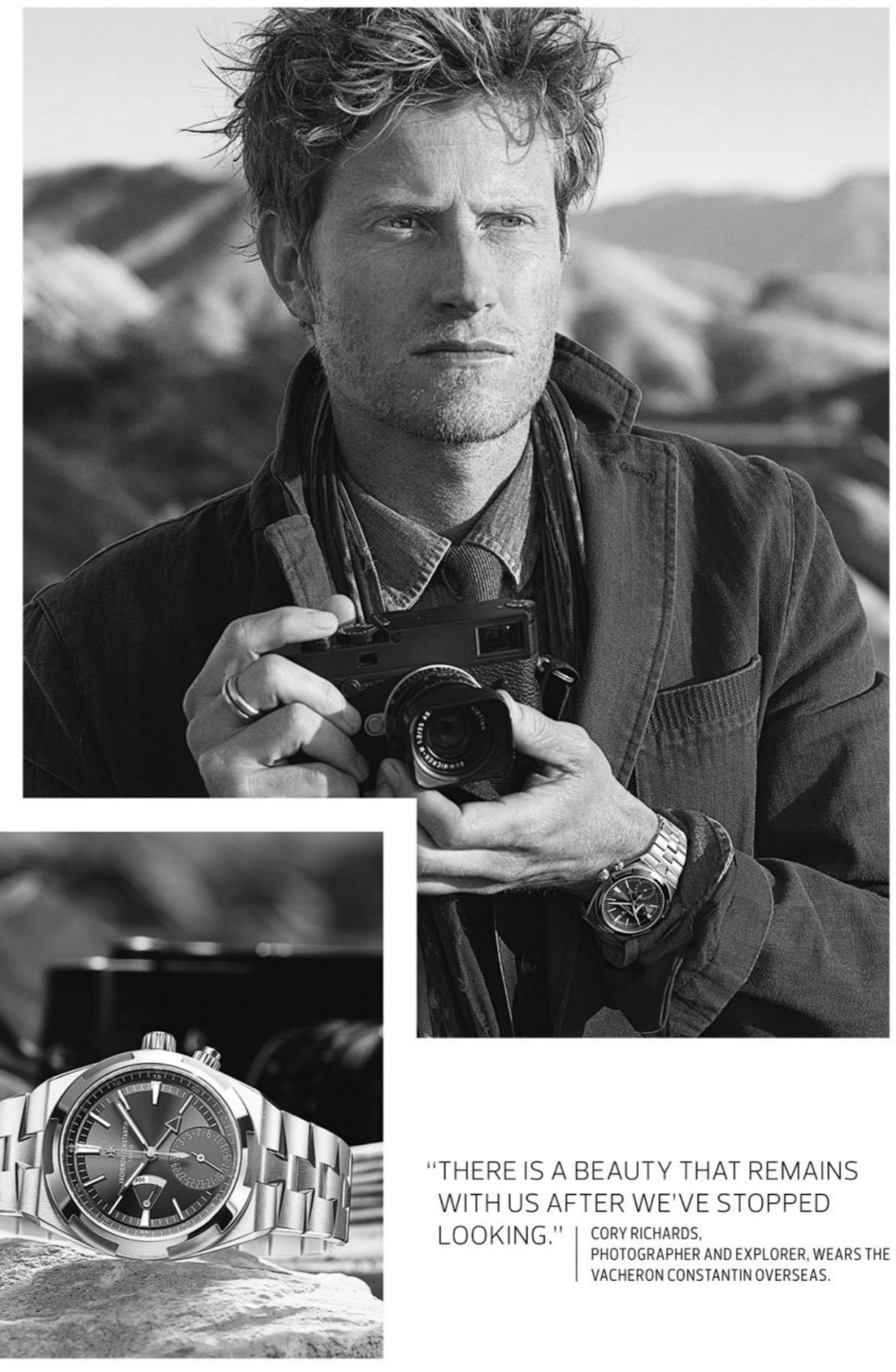
고 전했다. "LA에 온 지 8년이 되었고, 앞으로 10년만 더 이렇게 산다면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기독교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목사는 "과거 문맹률이 90%가 넘던 시절, 한국 기독교가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켰다"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강, 언어의 강, 문화의 강, 지리의 강을 견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문학을 알아야 성경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다"며 "책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읽던 책을 다시 펼쳐 밀줄 친 부분을 읽어보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며 "한 달에 10권,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귀보 목사(큰나무교회 담임), 김경도 목사(플라워마운드교회 사역목사),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 손해도 목사(달라스 코너스톤교회), 허양희 사모(어스틴 주님의교회), 다니엘 박 선교사(순회선교사), 강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표), 문선영 대표 (Wise California 대표), 홍장표 목사(달라스 수정교회), 이운영 목사(샌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 이성철 목사(GMC 한미연회), 최승민 목사(플라워마운드교회 담임) 등이 강사로 참여해 메시지를 전했으며, 원하트 미니스트리에서 음악으로 모든 집회를 인도했다.

미주=토마스 맹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 “교회는 인간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최창국 교수 “예수님, 긍휼로 세워지는 사회 회복 위해 오신 것”



최창국 교수(백석대 실천신학)(사진)가 최근 복음과 도시 홈페이 자에 ‘교회는 인간의 고통을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최 교수는 “우리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죄의 결과나 인과응보로 보는 습관을 경계해야 한다”며 “고통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구조적, 실존적 차원이 얹혀 있는 복합적인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회는 심한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는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취약 계층의 고통을 인과응보나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에 쉽사리 넘어간다. 제자들도 그랬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습적 사고의 틀에 갇혀 제자들도 유대인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은 이미 형통한 악인이 있고 고난 받는 의인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자신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편견을 버리는 일과 맞닿아 있다. 예수님이 왜곡된 생각과 싸우며 많은 조통과 비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건강

한 신앙은 왜곡된 생각과 편견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힘쓰며 기도하는 삶임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했다.

이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진 신앙만이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긍휼을 잊어버리고 정죄가 일상이 된 사회, 그런 사람들과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오셨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심고, 긍휼로 세워지는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다”며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이다. 긍휼(compassion)은 하나님의 자궁이, 의역하면 하나님의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신다는 의미이다.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미안함과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긍휼로 마주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불치의 고통에 놓인 이들”이라며 “오늘날 교회는 긍성 고통과 만성 고통에는 비교

적 민감하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교회는 방문하고 기도하며 돌본다. 그러나 한 종류의 고통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바로 불치의 고통”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살아가며 세 가지 고통, 곧 긍성 고통과 만성 고통과 불치의 고통을 경험한다. 긍성 고통은 상처나 수술, 질병과 관련되는 고통으로 대개 일정 기간 안에 회복된다”며 “만성 고통은 장기간 지속되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불치의 고통은 늙어감과 죽음에 직면하면서 경험하는 고통이다. 이 고통은 특히 노인들에게 가장 오래 머무는 손님과도 같은 고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는 노인들이 겪는 불치의 고통에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한다. 긍성 고통과 만성 고통은 외관으로 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돌봄의 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불치의 고통, 곧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늙어감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보편적인 고통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교회는 노인들의 고통을 더 세밀하고 깊이 이해하고 돌볼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고통 받는 이들을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성숙할 수 있다는 진리 앞에서, 이제 교회는 노인의 고통과 함께할 때”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 인터넷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흔적은 있는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존 가마데스(사진)의 기고글인 ‘직장에서의 신앙에 대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When 2026 is uncertain, remember that God is not)를 최근 게재했다.

존 가마데스(John Gamades)는 OrangeBall Creative의 사업가이자 리더, 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CBMC 신뢰받는 자문가 포럼(Trusted Advisor Forum) 회원으로서 자신의 신앙 성숙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리더들이 정직과 진실성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돋는 데 헌신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가끔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 말이다. 지금 던져려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다.

만약 어떤 고객이나 동료가 당신의 일터에서의 삶만을 관찰한다면 당신의 결정, 인간관계, 암박 속에서의 태도까지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영역은 완전히 보이지 않을까?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편인가, 아니면 숨겨두는 편인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 주제가 얼마나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괜히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잖아?” 또 동시에, “내 기독교 신앙은 주일에만 지키는 게 맞지, 평일 한가운데까지 끌어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

필자 역시 오랜 시간 이 씨름 속에 있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과, 직장 문화 안에서 ‘안전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필자의 일터에는 신앙의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만약 법정에 섰다면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일터에 신앙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드러나는 증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알아보는 방식이 신앙을 얼마나 크게 외치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그 증거가 된다고 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우리가 신앙에 대해 말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행동은 이미 신앙을 말하고 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암박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신앙이 드러난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우리의 ‘일’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로새서 3:23)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탁월함으로 일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본다. 당장

그것을 신앙과 연결 짓지는 않더라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다름이 훗날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는 문이 된다. 필자의 친구 돈 호퍼트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우리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입니다!”

### ◆밀하는 방식에 드러나는 증거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혹은 무너진다. 애고보는 혀의 힘에 대해 단호하게 말한다: “‘하는 작은 자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야고보서 3:5)

스트레스 속에서, 갈등 가운데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 사용하는 말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불평하고, 협박하는가? 아니면 상황이 어려울수록 인내와 절제, 은혜가 달라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일터에 신앙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입으로 말할 용기가 있을 때 드러나는 증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문이 열리고, 그 때는 믿음을 분명히 말로 표현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신앙이 개인적이고 숨겨진 신념으로 남아사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마태복음 10:32)

이 말은 회의를 설교로 만들라는 뜻도, 모든 대화에 억지로 신앙을 끼워 넣으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적절한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신앙을 믿는다”는 말은 신앙을 드러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앙을 드러내는 해가 된다면 어떨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온유와 존중은 메시지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메시지를 강화한다. 많은 이들에게 직장은 하나님의 맡기신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에는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삶은 매일 가까이서 보고 있다.

### ◆2026년을 향한 도전

만약 올해가, 사랑에 뿌리내린 방식으로 조금 더 의도적이고 담대하게 신앙을 드러내는 해가 된다면 어떨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증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그 답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그리고 매일의 신앙 고백 속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어디에서 서 있는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도록, 분명한 증거를 남기며 살아가자.

최승연 기자

## “손현보 목사 석방 환영… 종교의 자유 침해 없어야”

언론회 “교회, 종교자유·정교분리 명확한 입장 세상에 밝혀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논평을 통해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판결 후 석방된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에 대해 “석방을 환영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약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연기로 1년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손 목사는 이날 즉시 석방됐다.

언론회는 법원이 손 목사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재판 직후 손 목사가 밝힌 입장에 주목했다. 손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며 “바른 사법 제도

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 목사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해당 원칙의 기원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정교분리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 행위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청교도들이 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서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말도 한마디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교회는 당연히 우리의 가치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판결에 대해서도 “판사는 판사의 양심대로 판결하고, 나는 그에 따른 양심과 신앙의 가치에 따라 판단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손 목사가 구속된 기간 동안 미국 사회에서 나타난 반응도 전했다. 논평에 따르면 손 목사의 자녀들이 두 차

례 백악관에 초청돼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 내 목회자 1만 명이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미 국무장관과 부통령도 이 사안에 관심을 보였고, 최근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방미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우리나라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한다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한 말들에 대해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는 성경적 가치에 따라 성경의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목사가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영 기자

총전 한 번으로 메디온 갈 수 있잖아  
고학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 예레미야, 패권전쟁 시대에 망국을 읽다



민종기 목사  
KCMUSA 이사장  
충현선교교회 원로

## 창 던지는 자의 실로암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던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며,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어려운 사역, 즉 유대왕국의 멸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는 별명과는 달리, 감성적이기보다는 좀 더 의지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접근이 불허된 그는 동역자 바룩을 세워 계시를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전합니다.

그 책이 왕궁에 알리자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의 낭독을 들으며, 두루마리 책을 칼로 베어 화로에 태웁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다시 적어, 지금 우리가 읽

는 성경책으로 남깁니다. 그는 40년의 사역을 마치며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Lamentation)를 남깁니다.

예레미야는 국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투옥과 시위대 연금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암도적인 중근동의 패권으로 등장한 느브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의 권세 앞에서, 중근동의 나라들이 항복과 멸망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와 같은 마지막 유대 왕이 멸망을 자초하는 외교적 실책을 저지르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유대왕국이 멸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이유 중의 하나는 왕과 정책 결정자들이 국제 패권전쟁에서 일어난 변화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의 부상으로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BC. 612)하고, 갈그미스 전투(The Battle of Carchemish)에서 앗시리아-이집트가 패퇴함(BC. 605)을 보고도 친이집트 정책을 구사한 것입니다. 패권전쟁 중의 외교는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것인데, 유대 정책 결정자들은 망국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에는 국제관계를 읽어줄 지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사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에 의하면 선지자는 당시의 "사회비평가"입니다. 그들은 영적, 사회적 기상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고 있었고, 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완악한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고 불사르리라"(렘 37:8, 10) 예언합니다. 바벨론에 "행복해야 살 수 있다"는 그의 예언에, 왕은 '행복한 왕'이라는 조용을 두려워하며 저항하려 합니다. 반바벨론 이념으로 세워진 고관들은 불신앙의 카르텔이 되어 거꾸로 이로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유대 나라가 건국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기반한 왕국은 공의와 자비, 정의와 긍휼의 나라로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서 하나님의 공의(초다

카)는 부르짖음(초아가)이 되었고, 정의(미슈파트)는 포학(미슈파흐)이 되었습니다(사 5:7). 히브리인 노예는 율법을 따라 암시년과 희년에 해방되는데, 백성은 자비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시대 잠시 고관들이 자유와 해방의 법을 따라 노예를 풀어주었다가, 그들을 데려다 다시 노예를 삼습니다(렘 34:8-12).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렘 51:1). 신법(神法)을 저버린 나라는 더 이상 신국(神國)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예레미야는 왕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렘 38:15)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자적 비관주의"(prophetic pessimism)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 29:10)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예언자적 낙관주의"(prophetic optimism)입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위해 슬픔을 넘어 새 소망의 마중물을 보입니다.

# 역사 속의 소중한 가치를 담다



최선 박사  
OCU대학교 교수,  
SBCM KOREA 대표

현장이다. 민족의 아픔을 함께한 공주제 일교회 구예배당과 공주기독교박물관으로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

1919년 3월 1일 이후 공주시에도 독립 만세운동의 물결이 확산되었다. 동년 4월 1일 오후 2시 공주읍 장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만세시위는 공주읍교회(현 공주제일교회)의 현석칠 담임목사가 총 지휘를 하였다. 당시 공주읍교회 임원이며 영명학교 교사였던 이들과 학생 등 공주지역 감리회공동체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다.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가지고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던 이 운동에서 현석칠 담임목사 외 17명의 인물들이 피검 되어 팔박을 받았다.

공주제일교회는 1900년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관할하는 수원 이남의 감리교 중심지였다. 1902년 반죽동에 초가 1동을 구입하여 김동현 전도사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903년 7월 맥길 선교사의 파송과 더불어 초가 2동으로 본격적으로 선교를 진행하였다.

당시, 50-60명에 불과하였던 교인이 1907년에 이르러 300 여명으로 성장하였다. 예배당 확장이 불가피했지만 당시 교회 안팎의 사정은 녹록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선교부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우산을 쓴 한 사람이 많은 현금을 내놓게 되었다. 이 차원이 공주로 보내져 1909년 5월 예배당을 봉헌하게 되었다. 봉헌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리며 교인들은 이를 협선자(우산)을 든 사람예배당이라 불렀다.

3.1운동과 복음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공주지역을 살펴보자 한다. 1885년 미국 감리회는 조선에 첫 선교사 아펜젤러와 스크랜튼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공주는 1898년 스크랜튼 선교사의 방문으로 한강이남 충청지역 선교의 요충지 및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1901년 7월 공주지역에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902년 초가 한동의 교회를 시작으로 1903년 7월 하리동교회, 1909년 5월 협선자 예배당, 1931년 11월 상반정 공주읍교회를 개척했다. 공주지역 감리회와 공주제일교회는 월활한 선교활동을 위하여 공주읍내에 영명학교와 공주유치원, 방은두병원 등을 설립하여 대사회적인 선교를 펼쳐갔다.

뿐만 아니라, 공주지역 감리회 공동체는 공주읍내의 3.1만세운동을 주도했다. 공주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6.10만세운동, 신간회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등에도 참여했다. 특히 공주지역 감리회공동체는 각종 강연회나 야학회 등을 통하여 공주지역 신문화보급운동에 앞장섰다.

감리회공동체의 중심에는 공주제일교회가 있었다. 근대기에는 공주시 사회복지와 교육을 주도하였다. 민족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견뎌낸 공주제일교회는 공주시 근현대사가 집약된 역사의

##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진우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슬픈 것, 어려운 것, 마음이 아픈 것 등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또 "합력"이란 단아의 뿌리인 헬라어 "수네르게오(sunergeo)"는 단순히 여럿이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합께(sun) + 일하다(ergo)'라는 아주 역동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렘 8:28)

모두에게 은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비대칭적인 능력의 전능자이시지만, 내게 고난과 불행이 오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all things)"은 힘든 것, 괴로운 것,

미재단이사회, 북미총회 실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와 목사안수식, 그리고 순복음 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영훈목사 초청 LA축복성회와 한세콘서트콰이어 특별공연들까지 결코 쉽지 않은 행사들이었습니다.

사실 나타나는 큰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와 헌신은 몇 갑절이나 더 커야 하는 법입니다. 한국과 북미 등 각지에서 오는 손님들의 라이드는 복잡한 공항 상황과 계속 바뀌는 스케줄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각기 다른 팀들의 식사와 일정을 위해서 섭기는 일들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평소 관계가 별로 없는 정치가

와 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치르는 일에는 항상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 당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혜의 마음

으로 잘 섭겨주셨습니다. 믿음의 정성

을 담은 웰컴 패키지와 선물들과 구디백은 많은 분들을 감동시켰고, 공항까지 마중나간 장로님들의 식사 대접과 권사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의 식사는 때마다 감동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일을 도운 안수집사회와 천양팀과 현금송팀, 중보기도팀과 미디어국과 모든 부서에서 몸으로 헌신한 성도님들과 한세콘서트콰이어 36명의 숙박을 6박7일 동안 섭겨주신 최봉제안수집사님의 가정을 비롯해서 물질로 현금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합력하여 한국과 북미 전역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선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언제나 함께 하듯이 긍정과 부정도 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되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 게보린 쿨다운 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SAMJIN 삼진제약



광고심의필 :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열,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턱박통, 골절통, 연좌통(넙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 사건과 반응 사이에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래서 목상이 필요합니다. 목상 가운데 우리는 구체적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함께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떠올립니다. 제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을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때, 그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풀어 줄 명문장과 명언, 예화와 이야기가 담긴 책을 떠올립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삶의 기술을 알려 주는 책을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가 저를 멈추게 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경탄하게 만드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문장이 성경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좋은 자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자혜의 근원은 성경이며, 모든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놀라운 글을 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적 속에 담긴 지혜를 함부로 펼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서오경을 읽어보셨는지요. 고전을 읽어보셨는지요. 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책들입니다. 매년 한국에서는 6만 권이 넘는 책이 출판되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반면 고전은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 이유는 고전이 시대를 초월한 인생의 문제와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적용 가능한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찾아온 좋은 문장들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메닝거의 말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이 문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쉽게 그것을 '불행'이라 규정하며 좌절하고 합니다.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결국 부정적인 감정

에 암도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상황에 자해롭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장과 연결되어 또 하나님의 문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의 10%와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며, 반응이라고 말입니다.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

아고보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찾아온 혹독한 시련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고, 그는 역경을 넘어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창 50:20). 요셉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했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했습니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시인은 불행을 거부하거나 함부로 다루면 우리 삶이 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불행을 피하지 않고 정성껏 마주하게 만드었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고, 그는 역경을 넘어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창 50:20). 요셉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했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라는 문장을 묵상하던 중, 또 하나님의 도전적인 문장을 만났습니다. "반응만 하지 말고 창조하라." 이는 사건에 끌려 다니며 반응만 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헤브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입니다. 사건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공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무엇보다 반응만 하는 삶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축복의 원리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삶의 분명한 지침과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볼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 원리와 원칙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과 지혜와 상반되는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서"라는 성경적 원리는 세상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원리입니다. 세상 지혜는 "다 잊어야 결국 지나갈 일이다 과거에 묶여 살 필요 없다" 훌훌 털어 버려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며, 이해하려고 노력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용서"라는 원리는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합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달아 있는 원리와 원칙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 이 출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좋은 지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늘 자신의 생각과 의지 감정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리 속, 마음 속에 맴듭니다. 그 말씀이 양심에 부딪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칠 때, 나의 인간적인 뜻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죄에서 떠나게 되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 그의 삶에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신앙의 근본이자, 본질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위치에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뜻과 생각과 의지가 담긴 지혜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법이며,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돋는 지식과 지혜이며,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뜻과 생각과 의지가 담긴 지혜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법이며,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돋는 지식과 지혜이며,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우리는 반대가 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럽고 이웃에게 엄격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용 곧 너그러움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받아 길러 나가야 합니다.

관용은 다른 말로는 너그러움입니다. 긍휼은 상대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입니다. 상대의 아픔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일러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불행에 대하여 공감을 지니고 안타까워하며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베푸십니다.

관용 곧 너그러움은 크리스천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웬일인지 너그러움이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이웃에게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행복을 기 놓다

Your True ESG Partner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이승만 대통령 평양 수복 연설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북을 통일해야겠다' 결심하고, 우리 국군과 UN군을 격려해서 전선은 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평양 수복이 눈앞에 보였다.

그런데 평양 탈환을 앞두고 한국군과 UN군, 한국군과 한국군끼리 '누가 먼저 평양을 수복할 것인가?'를 두고 전공을 차지 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 하마터면 우리 군끼리 서로 교전할 뻔했었다. 그러나 1사단이 평양을 수복하고 다른 사단과 UN군도 거의 같이 평양을 탈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때까지 평양 시민은 4년 가까이 공산 정권에게 박해, 수탈, 감시, 강제 동원 등등. 참혹한 죽음을 보았던지라, 평양 시민들은 국군을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했다.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나와 만세를 외쳤다. 그것을 기념하는 '평양 수복 기념 손수건'의 내용은 이렇다. 먼저 UN기, 성조기, 태극기, 영국기 깃발이 있고, 영어로 Daegu, Daejeon, Incheon, Seoul의 전투 장면이 있고, 마지막에는 "Take up Pyongyang"이라고 인쇄되었다. 지금의 디자인으로 보면 다소 조잡해 보이지만, 평양 수복의 기쁨을 모두가 나누려고, 한국군, UN군, 미국군, 영국군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지금부터 80년 전 자료다. 평양 수복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 시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감격하여 다음과 같이 '평양 수복' 연설을 했다.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산당의 폭정 아래 신음하던 평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감격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 땅은 본래 '자유'와 '신양'의 땅이요, 민족의 양심이 살아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 일부 동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던 백선영 장군의 분투와 UN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키고 북진할 수 있었다. 9·15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9·28 서울 수복을 했다. 그러나 서울 탈환을 할 때, 전공은 미군이 세웠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참에 남과

로 이 나라를 빼앗고, 동포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를 말살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전쟁은 단순한 영토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자유와 공산주의, 진리와 거짓 '신양'과 '무신론'의 싸움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민족을 위한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외세의 앞잡이가 되어 동포들을 학살하고,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을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수를 갚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족을 살리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과 북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공산 폭정을 몰아내고, 자유와 정의 위에 통일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죽어간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나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정의의 편에 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끝까지 용기를 잊지 맙시다. 자유대한민국은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은 녹음 기록이 아니지만, 여리 사료와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기' 등에서 나온, 자유, 반공, 신양, 통일이 핵심이었다. 그 후 UN군과 한국군은 계속 북진했고, 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중국으로 도망간던 김일성이 중국 인민군대를 불러드려, 이른바 인해전술(人海戰術)로 결국 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중국군에는 실상 조선족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조선족을 총알 받아로 삼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주적(主敵)이다. 또 조선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엄연히 중국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 전쟁이 아닌, 이념 전쟁 중이고, 역사 전쟁 중에 있다. 지난 80년 동안 이승만 죽이기 운동이 계속 되어 왔다. 그래서 이승만이 세운 자유대한민국을 맹가뜨리려는 중국 세력은, 자유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까지 모든 영역에 포진하고 있다.

어째서 이 나라는 국부(國父)이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가 없는지! 1948년 8월 15일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지의 머리기사는 다음과 같다.

Korea Set up as Republic,  
The Regime of Tai Han Min Kook-  
Republic of Korea was proclaimed as  
the nation's sovereign government by  
its first President Dr. Syngman Rhee

##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02-739-8119 또는 press@cdaily.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기사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社 說

### 총회장 등에 '동성애 반대' 의무화한 교단

예장 통합 총회가 교단 내 동성애로 인한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난 109회 총회에서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는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젠더주의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도록 임원선 거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최근 부총회장 임후보자에게 동성애 관련 입장을 묻는 문구를 삽입해 정관을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통합 교단지 보도에 따르면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에게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 등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서명하는 양식을 확정했다고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은 지난 102회 총회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공식 입장을 정하고, 지난해 총회에서 동성애 관련 임원선거조례를 개정했다. 또 '동성애 대학 측이 성 소수자를 옹호하며 무지개 깃발을 들었던 학생들을 징계했는

시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동성애 대책을 내놨다.

교단 산하 7개 직영신학대학교의 정관에도 동성애 관련 내용을 삽입하기로 했다. '교과의 장과 교원 임용 시와 신대원 응시자는 입시전형에서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정관을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통합 총회가 총회장, 부총회장 등 교단 리더십에 동성애 입장을 묻는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목사고시 응시자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받기로 한 건 동성애 대책에 교단에 얼마 나 힘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동성애 관련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통합 교단은 지난 2018년 교단 신학대인 장로회신학대학에서 일어난 무지개 깃발 사건으로 큰 흥여를 치렀다. 당시 대학 측이 성 소수자를 옹호하며 무지개 깃발을 들었던 학생들을 징계했는

데 학생들이 사회 법정에 제소해 대학이 패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장신대 총장의 인준이 총회에서 부결되면서 교단 내에서 신학대에 부는 동성애 바람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빛쳤다.

이런 배경에서 교단이 동성애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 충분히 수긍이 간다. 교단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와 목사고시에 동성애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도 그만큼 동성애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교단의 수장이 될 자격을 갖춘 지도급 인사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노회와 교단 내 주요 임원직을 두루 거치며 겸종이 된 인물만 후보가 될 수 있다. 특히 총회장은 부총회장 후보 때 이미 겸종을 마쳤는데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 불필요한 행정 낭비일 수 있다. 다른 교단에서 이를 제도화하지 않는 건 동성애 대책에 소홀해서가 아닐 것이다.

### 주한미군 감축? 북한 오픈 부를 위험한 도박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 종전과 다른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한미군을 현재의 3 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이 미국 본토의 위협이 아니고,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쓰기로 어렵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담겼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싱크탱크 보고서는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주한 미군은 현재 2만8천5백 명에서 1만 명으로 크게 줄일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할 이유로 '북한이 미국 본토 위협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을 앞서는 만큼 이제는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는 트럼프 대

통령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100억 달러를 주장하며 했던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2026 국방전략(NDS)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기반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다.

미국의 군사력 조사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공개한 '2026 군사력 랭킹' 보고서에서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됐다. 하지만 군사력 상위 5개국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는 600mm 초 대형 방사포방 부대를 시찰하며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 방어소 체계 운용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북한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이 방사포 무

기체계가 북한군의 전략적 공격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언급한 '전략적 공격수단'이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북한은 방사포에 전술 핵탄두를 탑재해 남한 전역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북한 도발의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인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건 우리 안보에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지금 시점에서 주한미군 수를 3분의 1로 줄인다면 북한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맹정부를 향해 관세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미국도 한반도를 다시 전쟁 위기로 몰아 넣는 위험한 선택을 해선 안 될 것이다.

# 든든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 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 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 6길 4

##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80평 (철근콘크리트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물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 [급매] 경북 영주 교회 및 주택 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일어나라 빛을 밝히라 이 는 네 빛이 이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이 나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http://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기나 국가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mailto:moon4903012@hanmail.net)

##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갈급한 목회자와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 역	일 시	장 소	대표언락처
대 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에목사) 주소: 대전 중구 수첩로 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 울 경 인 강 원	26.01.19(월)-20(화)	인천 김단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 주소: 인천 서구 완정로 188번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 산 울 산 경 찬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 부산 사하구 윤공단로 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 역	26.01.26(월)-27(화)	태안 예일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셀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 북 청 주	26.01.30(금)-31(토)	청주총신교회(담임 염광섭목사) 주소: 청주시 청원구 윤봉로 202번길 69	염광섭 목사 010.4410.9115
전 북 광 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덴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 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설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천 안 충 남 경 기 세 종	26.03.09(월)-10(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제 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리아교회(담임 김홍석목사) 주소: 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장사소개	양정옥 목사	예식성장교회부총사 / 성장교회예식부
	곽윤관 목사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목회코칭사관학교 / 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말씀전도 부총사 / 전도훈련
	홍자영 목사	부총사 / 영성훈련
	임동호 목사	좋은교회운동본부 / 목회 AI활용법 . 찬양
	오준실 목사	이야기하는 조직신학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페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어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 선교사 자녀의 성장 에세이

## 신간 '결핍인가 특권인가?'



선교사 자녀로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결핍인가 특권인가?』의 저자 매릴린 술릿 선교사는 인도에서 보낸 유년기와 기숙학교 생활을 회고하며, 선교사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외로움과 불안, 애착의 균열을 숨김없이 풀어낸다. 동시에 그 경험에 어떻게 한 인간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끌었는지도 차분히 증언한다.

이 책의 중심에는 제3문화권 아이들(Third-Culture Kids,

TCK)이라는 개념이 있다. 부모의 문화와 선교지 문화, 그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자라는 아이들. 저자는 이들의 삶을 특별한 문제로 분리하거나 비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을 묻는 경험은 오늘 날 많은 아이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성장의 한 형태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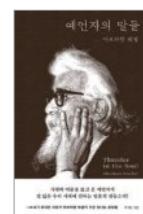
책 곳곳에는 부모와의 이별, 국경을 넘는 이동, 낯선 언어와 환경 속에서 허울로 감당해야 했던 어린 마음의 정면들이 담겨 있다. 기차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던 아이의 손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시선,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똑같은 존재'로 자라가던 아이의 내면은 독자의 마음을 조용히 흔든다. 그러나 이 서사는 상처에 머물지 않는다. 저자는 TCK의 경험을 결핍으로만 남지 않도록, 그 안에 깃든 가능성과 확장을 함께 조명한다.

『결핍인가 특권인가?』는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성찰을 제공한다. 동시에 기러기 가족,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맡은 사역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건넨다. 특히 "선교사 자녀로 자라는 것이 반드시 불행은 아니며,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는 경험은 아이에게 하나의 특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단정 대신 사유의 여지를 남긴다.

이 책은 성공담도, 영웅 서사도 아니다. 평범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기록이다. 선교사 자녀라는 이를 아래 둑여 있던 삶을, 한 인간의 성장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 에세이는, 결핍과 특권 사이에서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오래 남는 질문을 던진다. 최승연 기자

## 신간

### 예언자의 말들



20세기 가장 강렬한 종교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브라함 요수아 헤센의 핵심 사유를 한 권에 담은 문장 선집 『예언자의 말들』이 출간됐다. 이 책은 신학자이자 행동하는 예언자였던 헤센의 방대한 저작 가운데서, 오늘의 시대를 향해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문장들만을 엄선해 엮은 결정판이다.

폴란드 하시디즘 가문에서 태어나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헤센은, 학자의 서재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함께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하며 인종차별에 맞섰고, 전쟁과 폭력, 인간 존엄의 파괴 앞에서 신앙의 침묵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의 사유는 언제나 역사 한복판에서,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정념(pathos)이 맞닿는 지점에서 태어났다.

『예언자의 말들』은 이러한 헤센 사상의 정수를 "문장"이라 형식으로 응축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신비와 경외를

상실한 현대 문명을 향한 날카로운 진단이다. 정의와 책임을 회복하라는 예언자적 호소다. 헤센이 말하는 하나님은 세계 저편에서 관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깊이 연루되어 응답을 요구하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그의 신앙 언어는 언제나 구체적인 삶과 역사, 현실의 윤리적 선택을 향해 열려 있다.

책은 예언자적 사유의 핵심을 주제별로 엮어 독자가 헤센의 사상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든 순간은 영원을 스친다"는 통찰에서 시작해 신앙과 경이, 인간 생명의 거룩함, 정의와 하나님의 요구, 현대 문명의 영적 붕괴, 예배와 삶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헤센의 언어는 짧지만 강렬한 울림으로 독자를 붙든다. 그는 보편적 진리가 추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체적인 역사와 사건 안에서 드러난다고 말하며, 예언자의 언어는 결코 현실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특히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의에 대한 헤센의 사유는 오

늘의 사회적 갈등과 윤리적 혼란 속에서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한다. 그는 정의를 단순한 가치 목록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간 역사 속에 걸린 하나님의 "지분"으로 이해한다. 인간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양심에 남은 흔적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의 존재가 걸려 있다는 그의 통찰은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가두려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맞선다.

『예언자의 말들』은 긴 논증 대신 짧고 응축된 문장들로 구성돼 북상용 도서로도, 설교와 강의, 인용 자료로도 적합하다. 신앙의 깊이를 다시 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과 예언자적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는 목회자와 신학생, 헤센 사상에 처음 입문하는 독자들에게도 훌륭한 길잡이가 될 만하다.

경이와 책임, 신앙과 정의를 동시에 잊어버린 시대, 헤센의 문장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묻는다. 신앙은 무엇을 느끼는가가 아니라, 그 느낀 바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라고. 『예언자의 말들』은 그 물음 앞에서 다시 영혼을 긴장시키는, 예언자의 천동 같은 언어다. 최승연 기자

### AI와 사고를 나누는 시대… 김상균 교수, 신간 『두 번째 지능』

#### AI를 '두 번째 머리'로 제시한 인지과학적 안내서



인류는 도구와 언어를 통해 신체와 기억을 확장해 왔고, 이제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사고 자체를 확장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는 펴낸 신간 『두 번째 지능』은 AI와 함께 사고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이 책은 AI 활용법을 나열한 실용서도, 인간의 위기를 경고하는 선언문도 아니다. 저자는 AI와 공존하지 않는 선택지는 이미 사라졌으며, 중요한 것은 AI를 어떻게 통제할지가 아니라 어떤 삶의 관점으로 AI를 활용할 것인가라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AI를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고를 함

께 수행하는 '두 번째 지능'으로 정의했다. AI의 한계를 따지기보다 인간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방향으로 삶을 이끌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두 번째 지능』은 'AI를 쓰는 법이 아니라 'AI와 사는 법'을 묻는다. AI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 영역이 확장되고, 그에 따라 경쟁력과 창의성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볍조계 사례를 통해 AI 활용에 대한 태도 차이가 성과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소개하며, 익숙한 방식에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AI 기반 툴을 도입하면 관례 조사와 계약서 분석 같은 작업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며칠 걸리던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죠. 하지만 일부 베테랑 변호사들은 기존 방식에 익숙해서 AI 사용을 꺼립니다. '내가 직접 읽어봐야 놓치는 게

없지', 'AI는 맥락을 못 읽어' 같은 이유를 대면서요. 반면 신입 변호사들은 거리낌 없이 AI를 활용합니다. 그 결과, AI를 잘 쓰는 신입이 더 많은 자료를 더 빠르게 검토하고, 더 깊이 있는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상황도 나타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과가 좋은 쪽을 선호하겠죠. 능력과 경험이 많은 개인일수록 익숙한 방식에 머물려는 심리가 더 강하고, 그에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된 겁니다." (부) '나는 똑똑하고 유능하니 AI를 배우지 않아도 될까?' 중)

책은 질문·경험·실행이라는 3단계 설계를 통해 독자의 사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두 번째 지능』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사고를 확장하고 AI와 공존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실천적 안내서로 자리매김했다.

최승연 기자

####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주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정감 있는 일상과 쉬운 문제로 전하는 반전의 예언자적 메시지"

이 책은 앞으로 성장하는 기독교 신앙인에게

## 날씨를 함께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38)

### 분열 왕국시대 교회(B.C. 931-586)

솔로몬 왕의 무리한 건축과 강압 정 치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미 왕국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때문에 솔로 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예고대로 이스라엘 왕국은 남 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두 부족 왕국이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10개 부족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였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세겜을 수도로 하였다가 제6대 오드리 왕 (B.C. 885-874) 때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성경왕상 12장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조세 인하와 강제 노동 완화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왕상 11:26-39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

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남북 왕조로 나누실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전에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국가적 분열을 예고 하셨습니다(삼하 12:7-12).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 분열의 근원은 다윗의 패역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주석가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특히 '삼하 7:12-16', '삼하 12:25-26'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며 다윗의 후계자로 내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견해에 반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불법의 하나님으로 격하시키는 망령된 주장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뱃세바의 패륜에 대해서 출생한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뿐만 아니

라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장차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 앞에 불순종과 타락과 행악함으로 일관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분열시킬 장본인입니다.

'삼하 7:12-16'에는 이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고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어 왕위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이며 오히려 불법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으로서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솔로몬 아닌 다른 왕자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 솔로몬, 뱃세바 그리고 선지자 나단까지 가세한 인간적 욕심과 음모에 의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것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사무엘하 12:25-26'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뱃세바가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했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그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뱃세바, 나단 등의 불법을 허용하시지 않고 다른 왕자를 왕위에 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기 위하여 조치를 강구하였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장차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셨습니다(삼하 7:12-16).

따라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는 것은 다윗의 후계자로 제시되어 있었습니

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거나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적 민족적 분열이 있을 것이 경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분열은 이미 예고되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들의 불법과 악행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혼란을 감안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뱃세바, 나단 등의 불법을 허용하시지 않고 다른 왕자를 왕위에 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기 위하여 조치를 강구하였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에는 특별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다윗의 불의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이었습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 이스라엘기이프 아브라함 시대의 근동역사와 문명 (5)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 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 는 복이 될지라" (창 12:1~2)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애블라(Abla)를 만났을 것입니다. 1970년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제2대 도시 알레포에서 남쪽으로 50km 위치한 텔 마르디흐에서 농부의 팽이집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고대 도시 애블라는 셈의 4대 후손 애벨의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동남쪽으로 수메르 도시, 북쪽으로 하란, 서쪽으로 지중해 도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인 이 성읍은 BC 3,000년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BC 2,400년경 전성기를 끌고 있습니다. BC 2,300년 중반 메소포타미아를 훔친 아카드의 침략으로 도시가 불타고 파괴되었는데, 왕궁 터에서 2만여 점의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탔지만 점토판은 오히려 불로 인해 더 단단하게 구워져 현대까지 전해져 근동 지역의 세계 및 언어를 연구하는 귀한 자료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애블라는 수메르 도시들, 특히 근처의 마리(Mari)와 외교 및 교역 관계를 가

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제, 조세, 교역, 외교, 행정 등의 내용을 수메르어와 애벨라어로 기록하였으며 특히 수메르어 사전이 발견되었습니다.

텔 마르흐 에브라 유적 점토판 보관소 복원 점토판 쇄기문자 일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주요 도시는 다메섹(다마스쿠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다메섹 출신인 것으로 보아(창 15:2) 아마도 이곳에서 그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한 곳으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등재 보고서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진 다마스쿠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이라 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요한 문화,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다마스쿠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계속적으로 인간이 거주한 도시 중 한 곳이었다"라고 기록하며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가치는 국제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양대 문명을 잇는 국제 대로에는 '해안 길'과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모든 길들이 연결되는 곳이 다메섹입니다.

해안길은 우르가 있던 수메르 도시에 블라-다메섹-하솔-깃도-지중해 해변-가사-시내 반도-이집트를 연결하는 도로로 고대부터 국제 도로로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깃도에서 두로, 시돈으로 가는 지선과 요단 계곡 지역으로 연결되는 지선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는 다메섹과 헤스기야, 아카바만의 애시온계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길하우스, 디본, 헤르본, 암만, 길로암라트 등 요단강 오른쪽 도시들과 아리바야 반도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례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의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창 12:5-6)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 땅의 주요 도시들을 지나치고 세겜 땅 모례라는 곳에 멈추어 이곳을

거점으로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를 성경은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창 10:19)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중해의 시돈에서 가사, 그리고 사해 동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 15:19-21)

가나안의 서쪽인 지중해 해안가에는 두로, 시돈, 비블로스라는 고대 문명이 발달하였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는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페니키아라는 말이 가나안의 다른 말입니다. 페니키아는 오늘날의 시리아와 레바논 해안 지대, 즉 지중해 동안을 일컫는 고대 지명 및 문명으로, 주요 도시인 비블로스(Byblos), 두로(Tyre), 시돈(Sidon) 등은 BC 3,0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여러 민족이 혼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나안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주로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에 종사했으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오리엔트 문명을 그리스 지역에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상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서양 알파벳의 모체가 된 페니키아 알파벳을 전달한 문화 전달자로서 기여를 하였는데, 그들의 알파벳은 상행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표의문자인 쇄기문자를 표음문자화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페니키아라고 불린 것은 BC 1,200년경 그리스인들이 이곳에 살던 사람들을 '포이니키스', 즉 '자(紫)색의 사람'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곳 사람들이 값비싼 보랏빛 염료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길에서 배우는 세계와 여행 이야기 제공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의 *영혼의 양식(39)*

## 듣는 귀가 곧 복이다

## 본문

마태복음 13장 10-17절

## 서론

같은 예배, 다른 결과— 차이는 '귀'입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성경을 펼치며,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 깊은 결단을 암고 돌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 13:9) 이 말씀은 영적 경고입니다. "다 듣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만 듣는다" 나는 듣고 있는지, 아니면 소리만 스쳐 지나가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 본론

I. 신앙은 '봄'이 아니라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듣는 귀'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갑자기 껴내신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펼치는 하나님 백성의 오래된 신앙 언어입니다. 구약을 펼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아 보라"로 먼저 말씀하지 않았고, 늘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 6:4)

왜 하나님은 '보라'보다 '들으라'로 시작하셨을까요? 히브리어로 '듣다(쉐마)'는 단지 소리를 인지하는 뜻이 아닙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사실상 '순종한다'는 말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출 19:5) 듣지 않으면 언약이 흐려지고, 언약이 흐려지면 축복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약의 출발점은 언제나 '귀'였습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마 13:11) 이 문장은 마태복음 13장의 심장입니다.

제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사 6:10) 문제는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귀가 닫힌 것이었습니다. 완악함 때문이었고, 고집 때문이었으며, 변하기 싫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결심으로 만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귀를 여시는 역사로 이루어 주십니다.

II. 깨닫는 사람은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마 13:10-11)

이제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마 13:10) 여기서 갈림길이 시작됩니다. 무리로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비유를 듣고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리는 그냥 돌아갔고, 제자들은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마 13:11) 이 문장은 마태복음 13장의 심장입니다.

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열핏 들으면 하나님께 사람을 편 가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너희'는 가까이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묻는 사람들입니다. 불드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결에는 있었지만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듣기는 듣었지만 묻지 않았고, 보기는 보았지만 마음은 열지 않았고, 변화 앞에서는 뒷걸음질 친 사람들입니다.

III. 영적 세계에는 '증가 법칙'이 있습니다 (마 13:12)

이어서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 13:12) 처음 이 구절을 읽으면 불편합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길 뿐 불공평하게 들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별의 감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원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듯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불들면 자라고, 놓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증가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자'는 마음 안에 영적 태도가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겸손이 있고, 순종해 보려는 작은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급이라도 불드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 예배 후에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구절이라도 삶에 옮겨 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르고, 깨달음이 깨달음을 부르며, 성경이 점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으면 오늘 더 부드러워지고, 오늘 거절하면 오늘 더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더 사모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무덤덤해지고 있는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 멀어지고 있는가.



## IV. 듣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마 13:13) 주님은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으며" (마 13:15) 문제는 지성이나 아니라 마음입니다.

완악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영적 경직입니다. 말씀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굳어집니다. 고집과 자존심, 자기 의와 자기 방식이 마음을 꽉 채우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도 "몰라서"가 아니라 "변하기 싫어서" 귀를 닫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습관을 고쳐야 하고, 죄를 내려놓아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묻지 않습니다. 일부러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종적인 이유까지 드러내십니다. "돌이켜 내가 고쳐 줄까 두려워함이라" (마 13:15) 고침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역설입니다. 그러나 고침은 곧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면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불잡고 살 수 없고, 자기 방식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지가 아니라 완악입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굳어

진 심령을 깨뜨려 주소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겔 36:26)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믿음은 보는 데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 믿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눈과 이 귀가 열리는 것이 복입니다.

V. 그러므로 듣고 깨닫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마 13:16-17)

이제 예수님은 분위기를 바꾸어 제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너희 눈은 볼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 13:16) 여기서 말하는 '봄'과 '들음'은 육체 기능이 아니라 영적 인식입니다.

무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하는 '보는 눈'은 예수님의 누구신지 알아보는 눈이며, '듣는 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입니다.

눈이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 귀가 무엇을 듣습니까? 설교 소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발달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 결론

주님, 제 귀를 여소서—듣는 귀가 곧 복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찬송가 366

장의 가사처럼 "주님, 제 마음을 여소서. 제 귀를 여소서. 오늘 제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때로 이 복을 기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 119:18)

## 마무리 기도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수함으로 귀가 닫히지 않게 하시고, 완악함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듣는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불들게 하시며, 작은 순종을 시작할 때 더 큰 은혜를 맡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보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원호 목사 (서울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 전 교인을 위한 기도 필독서 캠페인

"언제까지 남의 기도문에 의존하겠습니까?"

하브루타식 기도훈련 적용 가능!  
- 질문하여 묻고, 나누며 배우고, 기도하여 적용한다  
- 세 모임 / 제자훈련 / 청년부 / 회희교까지 전 세대 활용 가능!  
✓ 대표기도가 부담스러운 성도에게  
✓ 기도 습관을 배우고 싶은 새진자에게  
✓ 공동체 전체의 기도 체질을 바꾸고 싶은 교회에 '기도할 때 역전되리라'  
단체 구매 및 전 교회 기도 캠페인 문의 edu10004@naver.com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은혜의 샘물 고난 극복의 능력

[롬 8장 1-39절]

앞에서 '고난과 신양'이란 주제로 '죄악의 존재 이유', '인간의 불행과 심판의 존재 이유', 그리고 '신자에게 고난이 자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난 극복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 사이에는 고난이 상존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 사이에 서 미래 구원의 축복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역사를 현재 구원을 미래 구원의 완성으로 밀고 가는 역사를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 사이에 고난이 상존하기는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끌어당겨 맛보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하고 연단 받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인간이 죄성을 지닌 육체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중생과 함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순종의 어려움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난 극복의 능력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8:1)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8:2). 또한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 이를 수 없었던 유행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8:3).

그 방법은 인간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성(罪性)이 가득한 육신을 입히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육신을 죄지 않고 그 영을 죄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8:4). 하나님은 영에 지배되고 하나님은 영의 의도와 목표에 방향이 정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8:5-6).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인도를 받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반대로 육적 분위기에서 지배되어 사는 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8:26-27).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

감화 인도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8:9).

둘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히 비교할 수 없다"(8:18)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제1차로 칭의와 성화를 통해 인간의 죄와 부패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2차로 주의 재림 때에 부활을 통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인생고(人生苦)는 물론 육욕과 죄성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선행한 몸' 혹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3차로 주의 재림 때에 온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막에 꽃이 피고, 독사 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처도 물지 않는 기쁨의 그 나라가을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8:37)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8:26-27).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

히 빌 바를 간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2. 고난은 축복을 기약하는 연단이며, 그 정도나 시간에 있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전합니다(10:13)고 말했습니다.

3. 고난은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세상이 잠시 살다가는 장막입니다. 깨닫게 하며, 이웃 사람의 필요성을 배우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강팍한 사람의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4.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과 아들이 이를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힘입니다.

5.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융의 경우처럼 인간에게 비밀로 붙여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은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 신앙과가정

### 교회와의 관계

우리가 만일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신약성경 그대로의 교회의 활동적이고 종성된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녔다 말았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리지도 끼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에 딱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고 아플 때 병원에 안 가겠습니까? 학교 교사를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학생이 학교에 안 가겠습니까? 그 렇게 하자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계란 한 줄을 샀는데 그중에 한두 개 잘못된 것이 있다 고 해서 그 후부터 계란 먹는 것을 그만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30절에서 밀고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그만두어라. 밀고 가라지는 추수 때에 갈라놓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부정직한 자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주저할 필요 없이 충성스러운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후회가 없으려면 교회의 교인의 반열에 서야 합니다.

창골산 봉목사 제공

## 향유목합

### 자기의 길 가기

새해가 일찍이 시작되었음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집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처한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분명치 아니하면  
무엇을 원치 않는지 분명히 해보십시오.

어렵뜻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여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다른 이를 덩달아  
따라가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종이 반을 가르고

기록을 해보십시오.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이때 자신에 대하여  
매우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여야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얻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 아시니  
과감히 하나님께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정리가 되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과



혹은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오직 현실 가능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후 마지막 목표에 이른  
나의 소명,  
나의 모습을 결론으로 써보십시오.

그리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나만의 길,  
나의 소명,  
나의 진정한 행복을 만날 것입니다.

산마루서산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AICh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지휘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福祿)을 누리거니와”(잠 13:2)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복록까지도 누리게 된다는 이 입술의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입술로 찬미함에 있어 올바른 찬미를 올려 드리도록, 지휘자들은 본인도 기도하며 이 일을 찾고 대원들을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1.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서 ‘항상 찬미’를 드리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고 지치는 일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괴로운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한 경쟁 시대의 각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온갖 세상의 짐이 두 어깨를 짓누르고 사방이 우

겨 싸임을 당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항상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주변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환경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사는 것이 곧 항상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끊이지 않는 찬미가 흘러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곤고한 상태에서도 드릴 수 있는 찬미의 제사가 진정한 제사입니다.

2.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찬미가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같이 그렇게 찬미를 드리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휘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찬양의 지도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 제사는 피 흘림의 희생제물이 필요하듯 찬양에는 희생과 손실의 값이 치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물질, 땀, 눈물, 충성, 진정한 섬김 등을 쏟아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찬미는 살찐 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찬양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런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일이지만, 이 기도보다 사탄이 더 싫어하고 무서워 하는 것이 신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험자에게 부르는 찬미입니다. 둘째, 제사에는 희생 제물만이 아니라 향도 필 요합니다. 찬양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바로 그 향입니다. 향나무에서 진액을 빼내어 만들어진 것이 향입니다. 나무나 껌질이나 잎을 태우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오는 찬미가 곧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향내 나는 제물인 것입니다.

이런 찬미를 우리는 쉬지 말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3. 이러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복록’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13장 2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잘 맺으면 복록을 누린다”고 하시고 잠언 12장 14절에는 “복록을 누리되 족하게 누린

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복록이란 말과 축복이란 말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복록이란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열매를 맺은자는 복록을 누린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복록이란 말에서 ‘복’은 영적 인 복을 말하는 것이고, ‘복’은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은 옛날에 왕이 벼슬하는 사람들에게 내렸던 은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복, 양곡(쌀), 노비, 농토, 우마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 즉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의 복을 보장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복록을 누리길 원한다면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입술의 찬미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루에 세 번 새벽, 낮, 저녁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루에 일곱 번씩’ 드렸다고 합니다(시 119:164)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 입술의 열매를 맺는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과 건강이 있고 찬송이 침체되어 있다면

어 복록을 누리는 지휘자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교회는 병들어 있고 미래는 매우 비관합니다.

래이지 찬양이 아닙니다. 깊이 묻어나는 영의 찬양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인 찬양이 쇠잔한 교회나 지휘자는 심장의 막바이 끊어져 가는 교회이거나 그러한 지휘자입니다. 찬양의 모습이 그 교회와 그 지휘자의 영적 건강 측정의 바로미터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보잘것없는 전막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찬송이 역동적이면 그 교회는 건강할뿐더러 미래도 밝습니다.

피 있는 제사와 같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향내 나는 찬양을 드리고 매일 입술의 열매를 잘 맺고자 노력하세요. 그 교회의 찬송이 신령과 진정이 있고 찬송이 침체되어 있다면

어 복록을 누리는 지휘자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지휘자는 입술의 열매를 맺기까지 정체성 있는 찬미의 제사를 쉼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피 있는 제사와 같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향내 나는 찬양을 드리고 매일 입술의 열매를 잘 맺고자 노력하세요. 그 교회의 찬송이 신령과 진정이 있고 찬송이 침체되어 있다면

어 복록을 누리는 지휘자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 ◆ 이선우

미국 유니온대학과 동대학원에서 작곡과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바이올라 대학원에서 지휘과정을 수학하였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21세기한국교회음악연구협회이사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선교합창단 총연합회이사장, 한국교회음악협회등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음악출판협회주최 합창세미나인 <씨칭세미나>의 주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백석예술대와 백석콘서바토리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96년부터 합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이노스합창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사역하며 백석대학교 시무장로, 시온찬양대의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 조율(tuning)의 삶과 신앙



연주를 하기 위해 앞서 반드시 점검할 일은 조율(튜닝)이다.

조율이 안 되면 연주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연주회를 앞두고 오랜 만에 본당의 피아노를 조율했고, 오보에 주자를 중심으로 전체 단원들이 라(A)음에 자기 음을 맞추는 조율의 절차를 거쳤다. 그만큼 조율은 음악의 기본이고,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① 조율은 타인을 위한 전적 배려다. 혼자 연주를 한다면 구태여 조율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조율은 화합을 위한 작업이다. 협연을 할 때는 타인의 소리에 나의 소리를 맞추려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섬세하고 민감하게 소리를 내는 이유는 화음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조율은 아름다움을 위한 기술이

다. 서로 다른 파트의 음과 소리가 하나를 이룸은 음악의 신비다. 화음을 이루지 못하는 두 가지의 소리는 선율이 아닌 소음일 뿐이다.

④ 조율은 바쁜 걸음을 내딛기 위한 숨고르기다.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하기 전 거친 숨을 멈추고 조용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⑤ 조율은 불협화음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저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절제하고 약속하여 정한 소리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조율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리라.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공동체를 이뤄야 하고, 공동

◆ 최규환 목사  
가락중앙교회 담임목사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및 대학원과 실천신학대학원을 수학하고 수필집 [생. 삶. 쉼터]을 출간했으며 자작곡 음반 [삶 그리고 신앙], 자작곡 부활절 칸타타집 [최후의 만찬]을 발표한 목회자이다.

체 안에서 꾸려가야 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독주의 삶이 아닌 합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내 곁의 사람과 원하는 원치 않은 화음을 이뤄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소리로 모아져야 하고, 행여 나로 인한 불협화음으로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며, 빠르게 겉는 삶이 아닌 바르게 겉는 삶을 위해 자신의 거친 숨을 가라앉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만이 살아남는다는 사명을 기쁨으로 여겨야 비로소 조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조율은 힘든 작업이기는 하겠으나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아노를 칠 때 릴렉스(relax, 긴장 완화)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직된 상태로 견반을 치게 되면 소리도 좋지 않을뿐더러 팔 근육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지요.

피아노는 견반에 연결된 나무 헤더들이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르테(f)를 표현할 때 완력으로 무조건 쎈 소리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되며, 텐션 있는 거친 소리(harsh sound)가 아니라 탄력이 있는 둥글고 꽉 찬 소리(full sound)를 내

## ◆ 김준희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음대 졸업 후 도미하여 시리큐스 대학원에서 피아노 석사를, 피바디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오르간, 하프시코드로 석사 후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백석 예술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친 후 힘을 놓아줄 때의 동작을 상상하

혹시 팔에 무리가 온다면 복을 복채로

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찬양한 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아버지 집을 향해, WELOVE

##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 성지 체험 브이로그 '걸어서 이스라엘', 시즌 2로 돌아온다

엔게디에서 시작되는 광야의 여정…

이스라엘 절기와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성지 탐험 콘텐츠 〈걸어서 이스라엘〉이 시즌 2로 돌아왔다. 〈걸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진상 교수(히브리대 한동 글로벌센터 책임)와 아들 예성 군이 함께 성경의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는 성지 체험 브이로그로, 지난해 7월 총 10부작으로 시즌 1이 공개됐다.

시즌 2는 시즌 1이 지역과 장소 중심의 탐방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간다. 대속죄일, 초막절, 수전절 등 성경 속 절기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며, 각 절기에 담긴 의미와 함께 성경을 배경으로 한 역사와 문화까지 꼭꼭 다룬다.

프로그램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 부자(父子)의 케미스트리도 시즌 2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성장한 예성 군과 아버지 유진상 교수가 성경의 무대를 함께 걷고 탐험하며 나누



유진상 교수 부자 사진. ©CGN

는 대화는, 말씀이 살아 숨 쉬는 성경 현장을 여행하는 듯한 생동감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성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2000년 전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재와 그곳 사람들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걸어서 이스라엘〉 시즌 2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엔게디'를 주제로 다룬다. 엔게디는 '들연소의 산' 또는 '들연소의 바위'라는 뜻을 지닌 지역으로, 사해 서안 유다 광야의 동쪽 끝, 헤브론에서 동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다윗이 사울을 왕을 피해 몸을 숨겼던 장소이자,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주격전을 벌였던 혼란한 골짜기로 알려져 있다.

유 교수 부자는 엔게디 국립공원(Ein Gedi National Park)의 척박한 광야를 하이킹하며, 다윗과 사울 사이에 얹힌

증오와 용서의 이야기를 묵상한다(사무엘상 24장). 특히 지명과 연관된 성경 이

장지동 기자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3년 8개월 만에 새로운 싱글 '성령 하나님 (Live)' 발매

2022년 6월, 아이자야 씩스티원(Isaiah60tyOne)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을 리메이크해 발표했던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 3년 8개월 만에 새로운 싱글 '성령 하나님 (Live)'을 가지고 돌아왔다.

자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먼훗날 네 여정은  
자금보다 훨씬 즐겁고  
더 안전할거야.”

더 즐겁고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기술이 만듭니다

HYUNDAI  
MOBIS